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나혜림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도교수 최 현 자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나 혜 립

나혜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원장 손 상 희 (인)

부위원장 나 종 연 (인)

위원 최 현 자 (인)

국문초록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능한 일찍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의 은퇴준비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요인이 소비자의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은퇴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준비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통제 오류 때문에 은퇴준비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행동재무학의 주장을 바탕으로 실제로 소비자의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지적 요인인 금융이해력과 동기적 요인인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검증하여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된 실무적, 교육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에서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은퇴관련 특성과 은퇴준비행동의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고, [연구문제 2]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서는 행동재무학 및 계층적 성격모델, 투자자 행동모델을 바탕으로 연

구모형을 설정하여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과 은퇴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 및 그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준비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희망하는 것보다 일찍 은퇴를 맞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준비를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은퇴준비행동을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거주지 규모, 주택보유 여부, 경제적 특성,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와 거주지 규모가 작은 응답자가 은퇴준비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의 경우, 소득과 자산이 많고, 부채가 없으며,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은퇴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자기통제가 객관적·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이해력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객관적 은퇴준비행동과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게 도출되었다. 객관적 금융이해력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나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졌으나,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격적 요인, 인지적 요인, 동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교육 및 실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준비행동의 활성화를 위해 은퇴교육을 진행하고 은퇴설계를 실시할 때,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소비자와 소규모 거주지에 살고 있는 소비자, 경제적 상황 및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은퇴준비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격적, 인지적, 동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분석을 통해 기본적 특성이자 성격적 요인인 자기통제가 사회적 행동인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표면적 특성이자 인지적 요인인 금융이해력과 동기적 요인인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먼저, 은퇴설계나 은퇴교육의 초기 단계에 개별 소비자의 자기통제 성향을 측정하여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라 다른 강도의 소비 및 저축 규칙을 설정하고 부여함으로써 은퇴준비의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높은 자기통제 수준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이는 행동이 궁극적으로 변화하여 지속성을 가지려면 개인의 내면에서부터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이해력의 경우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측정된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도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의 객관적 은퇴준비행동과 스스로 평가한 은퇴준비행동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은 소비자가 현실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은퇴준비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자기과신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취할 때, 소비자가 객관적 금융지식의 함양을 토대로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은퇴준비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설계 및 교육의 진행에 있어서 목표중심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증대될수록 객관적·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향후 은퇴설계나 은퇴교육을 진행할 때, 소비자로서 하여금 자신에게 특화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준비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준비행동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측정함으로써 은퇴준비행동과 관련된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자기과신이나 과소평가가 은퇴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면, 인지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은퇴목표의 명확성, 은퇴준비행동, 행동재무학, 계층적 성격모델, 투자자 행동모델.

학 번 : 2011-21661

목 차

국문초록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
제 1 절 이론적 배경	5
1. 자기통제와 은퇴준비행동	5
2. 계층적 성격모델(Hierarchical Model of Personality)	6
3. 투자자 행동모델(Model of Investor Behavior)	9
제 2 절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12
1.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12
2. 심리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16
1) 성격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16
2) 인지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18
3) 동기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21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3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23
1. 연구문제	23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4

제 2 절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27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7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변수의 측정	28
3. 조사도구의 신뢰도	34
4. 분석방법	34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제 4 절 조사대상자의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수준	38
1. 조사대상자의 자기통제 수준	38
2. 조사대상자의 금융이해력 수준	39
3. 조사대상자의 은퇴목표의 명확성 수준	41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42
제 1 절 소비자의 은퇴관련 특성	42
제 2 절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	45
제 3 절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	51
1. 측정모형 분석	51
1) 개별 잠재요인 대상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51
2) 전체 잠재요인 대상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54
2. 구조모형 분석	56
1)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포함 모형 분석	56
2)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포함 모형 분석	6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8
제 1 절 요약 및 결론	68
제 2 절 제언	71
1. 교육 및 실무적 제언	71
2. 후속 연구에의 제언	74
참고문헌	76
부록	84
Abstract	98

표 목 차

<표 2-1>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15
<표 2-2> 성격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18
<표 2-3> 인지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20
<표 2-4> 동기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22
<표 3-1> 사회·인구학적 특성 측정문항	28
<표 3-2> 은퇴관련 특성 측정문항	29
<표 3-3> 은퇴준비행동 측정문항	30
<표 3-4> 자기통제 측정문항	31
<표 3-5> 객관적 금융이해력 측정문항	32
<표 3-6> 주관적 금융이해력 측정문항	32
<표 3-7> 은퇴목표의 명확성 측정문항	33
<표 3-8> 측정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34
<표 3-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6
<표 3-10> 조사대상자의 자기통제 수준	38
<표 3-11>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금융이해력 수준	39
<표 3-12>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금융이해력 수준	40
<표 3-13> 조사대상자의 은퇴목표의 명확성 수준	41
<표 4-1> 조사대상자의 은퇴관련 특성	42
<표 4-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	47
<표 4-3> 자기통제 측정모형 분석 결과	52
<표 4-4> 주관적 금융이해력 측정모형 분석 결과	53

<표 4-5> 은퇴목표의 명확성 측정모형 분석 결과	54
<표 4-6> 전체 요인 대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5
<표 4-7>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57
<표 4-8>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57
<표 4-9>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모형 경로변인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60
<표 4-10>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62
<표 4-11>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62
<표 4-12>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모형 경로변인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65

그 립 목 차

<그림 2-1> 계층적 성격모형	9
<그림 2-2> 투자자 행동모형	11
<그림 3-1> 연구모형	24
<그림 4-1>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	60
<그림 4-2>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	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2011)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3%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한편 저출산 추세가 지속됨으로 인해,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제금융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한 은행이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50년에는 1명의 노동인구가 1.65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RBC, 2012).

고용의 불안이 증대되고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 은퇴 이후의 기간이 보다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찍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은퇴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한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퇴조로 노후를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은퇴이후의 삶을 안락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은퇴준비가 꼭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은퇴준비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은퇴준비가 은퇴 이후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은퇴준비의 여러 영역 중 경제적 준비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준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해 최대한 일찍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의 은퇴준비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일찍부터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030세대의 은퇴준비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은퇴준비수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2012),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걱정은 하지만 은퇴준비행동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Morgan 등, 2004).

은퇴준비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요인이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은퇴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준비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동재무학에서는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자기통제(self-control)에서 찾는다.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지연시키는 행동으로써 현재의 소비에 대한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은퇴준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만족을 위해 즉각적인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설사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는 은퇴준비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측면의 은퇴준비행동은 소비자의 재무관리 행동 중 하나로 소비자가 갖고 있는 금융이해력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재무 지식이 건강한 재무 행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Shim 등, 2010) 따라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은퇴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은퇴준비행동은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대비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닌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소비자의 행동 참여 동기와 목표관련 특성 또한 은퇴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외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경우에도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여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 심층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원인에 주목하여, 행동재무학에서 제안하는 자기통제의 측면에서 은퇴준비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계층적 성격 모델 및 투자자 행동 모델을 근거로 하여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검증하여 이들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히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격적, 인지적, 동기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의 구조를 이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다양한 차원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선과 변화의 여지가 있는 성격적·인지적·동기적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된 실무적, 교육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자기통제와 은퇴준비행동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 전통 경제학과는 달리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재무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행동재무학에서는 개인이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근거를 자기통제 오류에서 찾고 있다. 자기통제 오류란 사람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환경에 휩쓸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잘못을 말한다. 자기통제 오류는 개인이 미래를 위한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즉 ‘내일을 위해 오늘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이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주소현, 2009).

Thaler와 Shefrin(1981)은 인간의 자기통제 문제를 조직체의 주인-대리인 문제에 빗대어 설명한다. 조직체 내에 조직의 소유주(owner)와 직접 일을 수행하는 관리자(manager)가 있는 것처럼 한 개인의 내부에도 계획자(planner)와 실행자(doer)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은 각기 다른 시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점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을 빚는다. 이러한 갈등은 근시안적인 감정과 미래 지향적인 이성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생겨난 결과물로 욕망과 의지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획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생의 효용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실행자는 오직 한 순간에만 존재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다.

계획자와 실행자 모델을 적용하여 저축 행동을 설명한 이 연구에 의하

면, 계획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생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실행자이기 때문에 이 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행동의 제약이 주어지거나 일정한 규칙 및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한다. 즉 자기통제의 오류란 한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계획자와 실행자의 갈등에 의해 생기는 문제이며, 이것이 사람들이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Akerlof(1991)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소득활동기간 동안 현재의 지출에 대한 욕구에 굴복하여 은퇴를 위한 저축을 미룬다는 것이 밝혀져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신경학자들은 뇌의 내부에서 즉각적인 보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과 지연된 보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McClure 등, 2004). 즉각적인 보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limbic system)은 감정을 중시하는 뇌의 영역인 반면 지연된 보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cortex)은 보다 분석적인 사고가 행해지는 곳인 것으로 나타나, 한 개인 내에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존재가 동시에 존재하여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 자기통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행동재무학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2. 계층적 성격모델(Hierarchical Model of Personality)

인간의 성격이 독특한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의 구조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한 Allport(1961)는 성격을 여러 단계의 계층적 구조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특성들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기본적, 중심적, 이차적 특성의 세 단계로 범주화하였다.

기본적 특성은 개인의 전체적인 삶을 지배하는 특성으로써 개인의 행동에 넓은 범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된다. 기본적 특성의 예

로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마키아벨리같은(Machiavellian)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존재 전체를 지배하는 특성이다. 중심적 특성은 기본적인 특성보다는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성격의 토대를 형성하는 특성이다. 중심적 특성의 예로는 정직한, 강박적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이차적 특성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느끼는 불안감과 같이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타나는 태도 및 선호와 관련된 특성으로 기본적인, 중심적 특성 보다 덜 일반적인 특성을 의미한다.(Allport 등, 1936; Allport, 1961)

이러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킨 Buss(1989)는 기본적인, 중심적, 표면적 특성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세 계층의 관계에 의해 인간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기본적인, 중심적 특성은 보다 깊은 수준에 존재하는 특성으로 구체적인 표면적 특성의 토대를 형성하는 특성이다. 표면적 특성은 Allport(1961)가 제시한 이차적 특성과 같은 맥락의 특성으로 표면적 행동이 요약된 특성이다. 계층적 성격 모델에 따르면 기본적인 특성은 중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중심적 특성은 표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기본적인 특성(cardinal trait)은 성격의 가장 깊은 층에 존재하는 특성으로 적은 수로 구성된다. 계층적 성격 모델을 이용하여 대학생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연구한 Mowen 등(1999b)은 기본적인 특성을 개인의 유전적 요인과 초기 학습의 결과로 발현된 기본적인이고 근본적인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기본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의 수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학자가 그 수가 제한적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으며(Hershey 등, 2000) 다수의 연구에서 5요인 모델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간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5요인 모델에서 제안하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특성은 외향성, 동조성, 성실성, 안정성, 개방성으로 구성된다.(Goldberg, 1993; Wiggins, 1996).

중심적 특성(central trait)은 기본적인 특성, 개인이 속한 문화, 학습 역사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현된 특성으로 기본적인 특성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지만 보다 많은 수로 존재한다. 이러한 중심적 특성은 표면적 특성

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기본적인 특성이 표면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심적 특성의 예로는 물질주의 성향, 자기 점검(Self-monitoring)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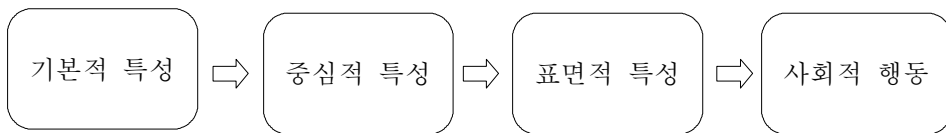
표면적 특성(surface trait)은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 내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 경향의 차이를 말한다. 즉 표면적 특성은 기본적인 특성, 중심적 특성, 이전의 학습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 상황 내에서 작용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면적 특성은 외부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매우 많은 수로 존재하며 특정 소비 상황 내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차이를 설명해준다. 따라서 표면적 특성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Mowen 등, 1999b).

계층적 성격모델을 적용하여 소비행위를 연구한 Mowen(1999a)은 기본적인 특성과 중심적 특성이 표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중심적, 표면적 특성이 사회적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5요인 성격모델로 대표되는 기본적인 특성이 미래에 대한 시각과 같은 중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대한 시각은 표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표면적 특성은 사회적 행동인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계층적 성격모델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Hershey 등(2000)은 계층적 성격모델을 이용하여 은퇴준비행동을 연구하였다. 기본적인 특성으로는 동조성을 제외한 5요인 모델의 4가지 요인이 외에도 물질주의 성향, 자극추구 성향을 포함시켰다. 물질주의 성향이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소비자일수록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저축을 덜 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은퇴준비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중심적 특성으로는 미래에 대한 시각이 모형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은퇴에 대한 준비가 장기적 관점의 인생 계획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표면적 특성으로는 은퇴 관여도와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관여도가 소비자의 정교한 정보처리 행동을 설명해줄 수 있으며 자신의 재무 지식과 재무적 문제 처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은퇴준비행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해당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여섯 개의 요인 중 성실성과 안정성의 기본적인 특성이 중심적 특성인 미래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대한 시각이 표면적 특성인 스스로 평가한 재무 지식수준과 은퇴 관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표면적 특성들 중 스스로 평가한 재무 지식수준이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림 2-1> 계층적 성격모델

3. 투자자 행동모델(Model of Investor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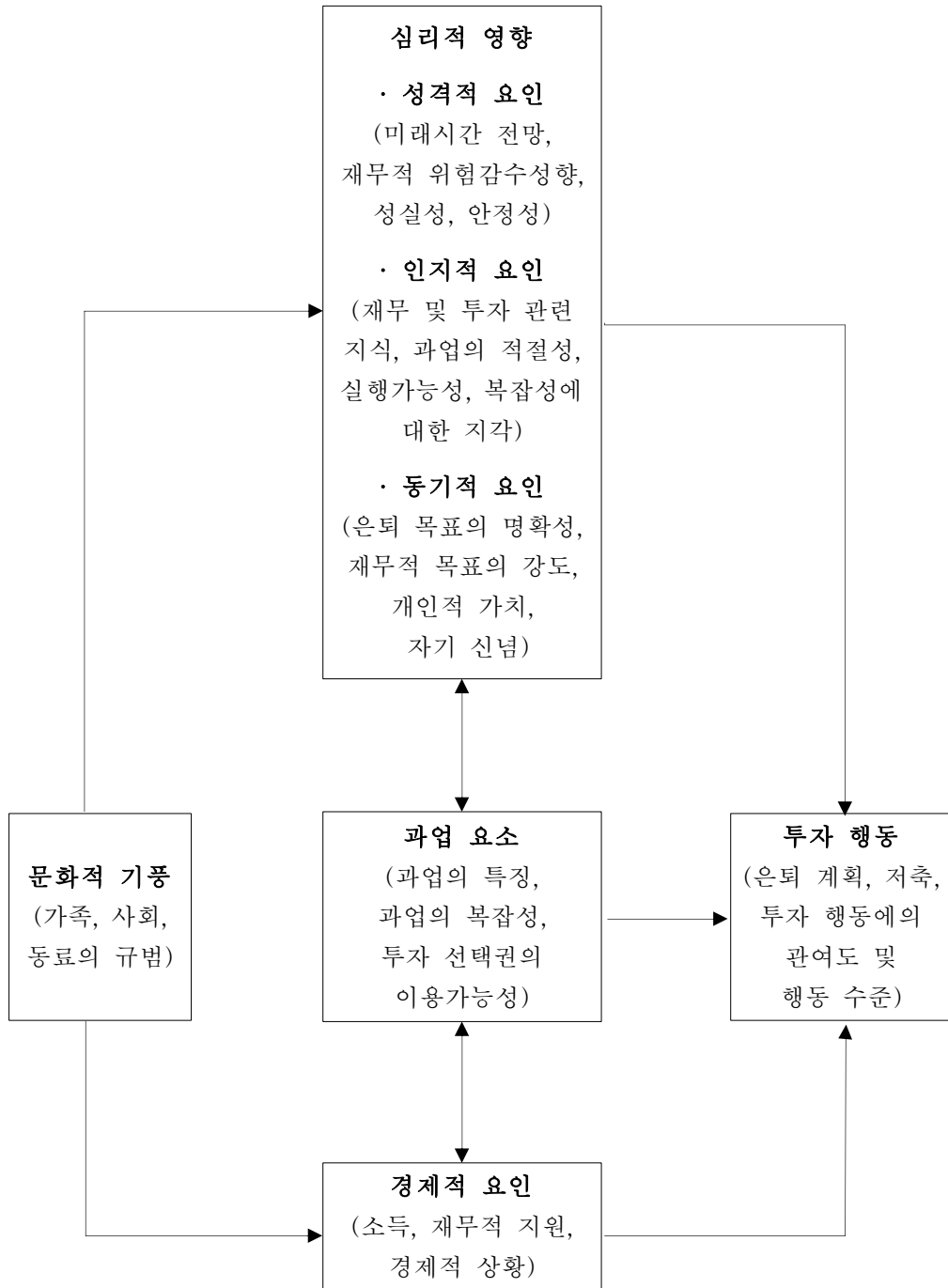
Hershey(2004)는 Friedman과 Scholnick(1997)이 제시한 일반적인 계획 모델을 확대하여 은퇴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투자자 행동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소비자의 투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은 심리적 영향으로 성격적, 인지적, 동기적 요소가 포함된다. 성격적 요소의 예로는 미래에 대한 시각, 재무적 위험 감수성향, 성실성, 안정성 등이 있고 인지적 요소에는 재무 및 투자관련 지식, 과업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복잡성에 대한 지각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동기적 요소에는 은퇴 목표의 명확성, 재무적 목표의 강도, 개인적 가치 및 자기 신념 등이 포함된다.

다음 영향요인은 과업 요인으로 과업의 특징, 과업의 복잡성, 투자 선택권의 이용가능성 등이 과업 요인에 속한다. 세 번째 요인은 문화적 기풍으로 이는 개인의 생각, 태도,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압

력을 의미하며 가족, 사회, 동료의 규범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요인은 경제적 요인으로 가계의 소득, 재무적 지원, 경제적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개인의 은퇴 계획 및 저축, 투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rshey 등(2007)은 투자자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265명의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은퇴준비행동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고, 미래에 대한 시각, 은퇴 목표의 명확성, 스스로 평가한 재무 지식으로 구성된 심리적 변수들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성격적 요인, 인지적 요인, 동기적 요인으로 구성된 심리적 요인들이 은퇴 계획 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연구를 통해 심리적 요인 기반의 은퇴 계획 모델이 검증됨으로써 소비자의 계획 행동과 은퇴준비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제공되었다.



<그림 2-2> 투자자 행동모델 (Hershey, 2004)

제 2 절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심리적 요인은 성격적 요인, 인지적 요인, 동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1.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개인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비 부담, 교육 수준, 직업, 거주지, 주택보유 여부, 자산, 부채, 소득, 지출, 경제상태, 건강상태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김성숙 등, 1992; 문숙재 등, 1997; 이승아 등, 1998; 이지은, 2000; 임경자, 2002; 배문조 등, 2004; 홍성희 등, 2006, 2007; 여윤경 등, 2007; 박창제, 2008a, 2008b, 2011; 차경욱 등, 2008; 정운영 등, 2009; 박애라, 2010; 백은영, 2011; 박주영 등, 2012; Barfield 등, 1978; McPherson 등, 1979; Beck, 1984; Li 등, 1996; Morgan 등, 2004; Richardson 등, 1989).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된 각 요인 별 은퇴준비행동의 차이는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홍성희 등, 2006; 박창제, 2008a, 2008b)와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준비를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백은영, 2011) 결과가 함께 존재한다.

연령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은퇴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김성숙 등, 1992; 임경자, 2002; 홍성희 등, 2006, 2007; 차경욱 등, 2008; 박창제, 2011; Morgan 등, 2004)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이 은퇴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Beck,

1984; Li 등, 1996), 박창제(2008b)의 연구에서는 40대까지는 노후준비 비율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효과가 혼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파악해보면, 먼저 연령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정적효과의 경우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은퇴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점차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성희 등, 2006). 한편 연령이 적을수록 은퇴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연령이 적으면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재무계획이나 투자능력에 영향을 미쳐 은퇴 후에 갖게 될 재정자원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문숙재 등, 1997).

결혼여부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며(박창제, 2008a; 차경욱 등, 2008; 백은영, 2011)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은퇴준비와 준비 유형의 결정 요인을 연구한 백은영(2011)의 연구에서는 교육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은퇴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결혼 이후에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보다 실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비 부담 등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은퇴준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성숙 등, 1992; 박창제, 2008a, 2011; 백은영, 2011; McPherson 등 1997; Beck, 1984; Morgan 등, 2004).

직업의 경우 전문 관리직 종사자가 은퇴준비를 보다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김성숙 등, 1992; 차경욱 등, 2008)와 직업적 지위가 낮은 근로자가 은퇴준비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Beck, 1984)가 혼재되어 있다. 전문 관리직 종사자가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은 타 직종에 비해 은퇴준비에 할애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많기 때문으로 예측해 볼 수 있고, 직업적 지위가 낮은 근로자가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하

는 것은 현재의 낮은 경제적 지위로 인해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보다 실감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소인특성, 가용자원, 필요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창제(2008a)의 연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노후준비를 보다 많이 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연구자는 거주지역이 도시이면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보수가 높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많아 노후준비를 행할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된다는 점과 도시거주자가 농촌거주자에 비하여 거주 여건상 생계비용이 높고 노후준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주택을 보유한 소비자가 은퇴준비행동에 보다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성숙 등, 1992; 박창제, 2008a; 차경욱 등, 2008; 백은영, 2011)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 자산, 부채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요인이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부 요인의 경우 영향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소득, 자산 등 경제적 요인이 은퇴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들(김성숙 등, 1992; 이지은, 2000; 배문조 등, 2004; 홍성희 등, 2006; 여윤경 등, 2007; 박창제, 2008a; 정운영 등, 2009; 박애라, 2010; 백은영, 2011; 박주영, 2012; Richardson 등, 1989; Morgan 등, 2004)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계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에 잘 대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은퇴 전 가계의 재정상태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파악하고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문숙재 등(1997)의 연구에서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연금가입을 적게 하여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높아 은퇴준비의 필요를 적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부채와 지출의 경우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쳐 부채

와 지출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 등, 1997; 홍성희 등, 2006).

또한 객관적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상태도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현재 경제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홍성희 등, 2006; 차경욱 등, 2008; 박애라, 2010; 백은영, 2011), 중년기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현재 가계 경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노후대비를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현재 가계의 경제 상태가 나빠졌다고 인식한 사람은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것을 우려해 경제적 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져(이승아, 1998; 임경자, 2002; 홍성희 등, 2006; 박애라, 2010; 백은영, 2011; Barfield 등, 1978; McPherson 등, 1979; Morgan 등, 2004), 건강상태 또한 은퇴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표 2-1>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영향요인	관계	연구
성별	남>여	홍성희 등(2006), 박창제(2008a, 2008b)
	남<여	백은영(2011)
연령	+	김성숙 등(1992), 임경자(2002), 홍성희 등(2006, 2007), 차경욱 등(2008), 박창제(2011), Morgan 등(2004)
	-	Beck(1984), Li 등(1996)
	∩	박창제(2008b)
결혼 여부	기혼>미혼	박창제(2008a), 차경욱 등(2008), 백은영(2011)
교육비 부담	+	백은영(2011)
교육 수준	+	김성숙 등(1992), 박창제(2008a, 2011), 백은영(2011), McPherson 등(1997), Beck(1984), Morgan 등(2004)
직업	전문 관리직	김성숙 등(1992), 차경욱 등(2008)

	종사자	
	근로자	Beck(1984)
거주지	도시 거주자	박창제(2008a)
주택보유 여부	보유	김성숙 등(1992), 박창제(2008a), 차경욱 등(2008), 백은영(2011)
자산	+	이지은(2000), 홍성희 등(2006), 여윤경 등(2007), 박주영 등(2012)
	-	문숙재 등(1997)
부채	-	홍성희 등(2006)
소득	+	김성숙 등(1992), 이지은(2000), 배문조 등(2004) 박창제(2008a), 정운영 등(2009), 박애라(2010), 백 은영(2011) Richardson 등(1989), Morgan 등 (2004)
	-	문숙재 등(1997)
지출	-	문숙재 등(1997)
경제 상태	+	홍성희 등(2006), 차경욱 등(2008), 박애라(2010), 백은영(2011)
	-	이지은(2000)
건강 상태	+	이승아 등(1998), 임경자(2002), 홍성희 등(2006), 박애라(2010), 백은영(2011), Barfield 등(1978), McPherson 등(1979), Morgan 등(2004)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일부 변수의 영향력의 방향과 유의성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1) 성격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의 경우, 크게 개인의 행동조절과 관련된 자기조절 및 내외통제성, 미래에 대한 인식과 은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요인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연구를 통해 자기조절(Self-regulation)수준이 은퇴준비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Howlett 등(2008)은 재무적 의사결정을 자기조절을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으로 파악하였다. 그들은 자기조절의 과정이 충동을 억제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자기조절 수준이 단기적인 유혹을 극복해야 하는 장기적인 재무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실제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자기조절수준이 높을수록 401(k)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떤 사건이 자신의 내부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지 또는 타인이나 행운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지와 관련된 개인의 신념체계를 의미하는 통제위치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먼저 김성숙 등(1992)의 연구와 박주영 등(2012)의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향을 가진 집단일수록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은퇴준비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책임의식이 은퇴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홍성희 등(2006)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외적 통제성향이 강할수록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경향을 보여 앞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은퇴 이후 건강 악화 및 기대여명의 연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사건들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은퇴 전부터 이를 대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퇴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Hershey 등, 2000; Hershey 등, 2007) 이는 은퇴준비행동이 미래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는 것을 즐기는 소비자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변수는 은퇴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요인으로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에 대한 태도, 은퇴 관여도 등이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먼저 합리적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은퇴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한 정운영 등(2009)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은퇴에 대한 인식과 은퇴태도가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은퇴를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소비자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은퇴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은퇴준비를 유도한다는 것을 밝혀 낸 여러 연구들(홍성희 등, 2007; 차경욱 등, 2008; McPherson 등, 1979)이 존재하며 은퇴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shey 등, 2000).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은퇴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은퇴를 자신과 관련된 사건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며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표 2-2> 성격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영향요인	관계	연구
자기조절(self-regulation)	+	Howlett 등(2008)
통제 위치	내적	김성숙 등(1992), 박주영 등(2012)
	외적	홍성희 등(2006)
미래에 대한 인식	+	Hershey 등(2000), Hershey 등(2007)
은퇴에 대한 인식	+	정운영 등(2009)
은퇴에 대한 태도	+	홍성희 등(2007), 차경욱 등(2008).
		정운영 등(2009), McPherson 등(1979)
은퇴 관여도	+	Hershey 등(2000)

2) 인지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재무 지식이 건강한 재무 행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인지적 요인이 재무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였다(Hilgert 등, 2003; Shim 등, 2010; Lusardi 등, 2009).

은퇴준비행동의 경우에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적 요인

이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최혜지 등, 2005.; 박주영 등, 2012; Hershey 등, 2000; Jacobs-Lawson 등, 2005; Hershey 등, 2007; Lusardi 등, 2007, 2009, 2011.; Van Rooji 등, 2011, 2012),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주관적 금융이해력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객관적 금융이해력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국내에서는 주관적 금융이해력의 영향을 밝힌 연구만 일부 존재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객관적·주관적 금융이해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먼저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자료(DNB)를 바탕으로 금융이해력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Van Rooji 등(2012)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이자계산 및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 등으로 측정한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자신의 경제적 지식수준에 대한 자신감으로 측정한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금융이해력 모두 은퇴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ershey 등(2000)의 연구에서는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은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정도와 이러한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를 저금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과 계층적 성격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은퇴준비행동을 분석한 최혜지 등(200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은퇴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식을 측정하고,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이 은퇴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박주영 등(2012)의 연구에서도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이 은퇴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계획, 사회보장제도,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및 금융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찾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

하는 정도로 측정된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Jacobs-Lawson 등, 2005; Hershey 등, 2007)에서도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은퇴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Lusardi 등, 2007, 2009, 2011; Van Rooji 등, 2011) 그 중 일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의 두 코호트 집단을 비교하여 은퇴준비행동을 분석한 Lusardi 등(2007)의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이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계획행동은 부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금융이해력은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의미하며 비율 계산, 복권 당첨금 분배 계산, 복리 이자 계산 등에 대한 문제를 통해 측정되었고, 이 중 복리 이자에 대한 이해가 은퇴계획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sardi 등(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은퇴준비에 실패하는 이유를 객관적 금융이해력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고, 연구를 통해 재무 지식 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은퇴를 위한 계획을 보다 많이 세우고 이러한 계획을 더 잘 실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재무 지식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은퇴준비를 위해 가족, 친지 및 동료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문가를 찾는 등 보다 공식적인 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 2-3> 인지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영향요인	관계	연구	
주관적 금융이해력	+	최혜지 등(2005), 박주영 등(2012) Hershey 등(2000), Jacobs-Lawson 등 (2005), Hershey 등(2007)	Van Rooji 등 (2012)
객관적 금융이해력	+	Lusardi 등(2007, 2009, 2011), Van Rooji 등(2011)	

3) 동기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Gollwitzer(1993)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개인의 성취를 측정하는 척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동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외의 몇 가지 선행연구들(김성숙, 1992; 박애라, 2010; Hershey 등, 2003; Hershey 등, 2007; Stawski 등, 2007)을 통해 은퇴준비행동의 경우도 동기적 요인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먼저 국내 연구의 경우,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박애라(2010)의 연구에서는 장단기 목표가 있는 경우 목표가 없는 경우보다 은퇴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은퇴준비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행동을 분석한 김성숙 등(1992)의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목표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은퇴준비수준과 노후준비를 위한 월평균 저축액이 모두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 제공 중심형, 목표 설정 중심형, 혼합형의 세 가지 유형의 은퇴 세미나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Hershey 등(2003)의 연구에서는 정보 제공과 목표 설정을 혼합한 세미나가 정보 제공만을 강조한 세미나에 비해 참여자의 은퇴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은퇴 세미나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중심적 교육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Hershey 등(2007)과 Stawski 등(2007)의 연구를 통해 은퇴 목표의 명확성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었다. 이들은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은퇴계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명확한 은퇴목표의 설정이 개인이 은퇴에 대해 인지하도록

깊고 미래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개인의 은퇴준비 행동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들은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해 본 정도, 은퇴를 위한 저축 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정도 등으로 구성된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커질수록 은퇴준비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표 2-4> 동기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영향요인	관계	연구
장단기 목표의 유무	유	박애라(2010)
경제적 목표의 수준	+	김성숙 등(1992)
목표중심적 접근	+	Hershey 등(2003)
은퇴목표의 명확성	+	Hershey 등(2007), Stawski 등(2007)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목표의 유무, 수준, 목표중심적 접근, 은퇴목표의 명확성 등이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동기적 요인이 은퇴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및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은퇴관련 특성을 알아보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성격적, 인지적, 동기적 요인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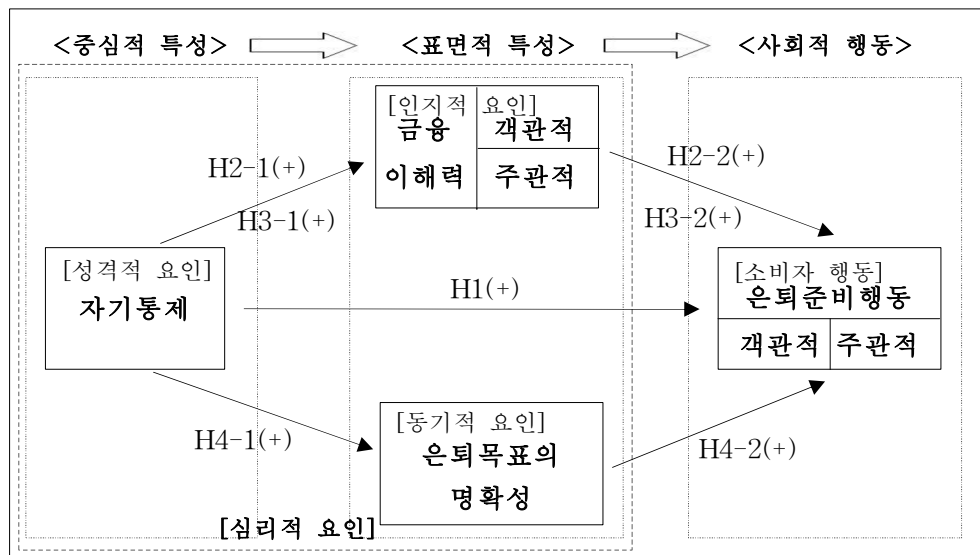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은퇴관련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소비자의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과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인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행동재무학과 계층적 성격모델, 투자자 행동모델을 근거로 하여 <그림 3-1>과 같은 연구문제 3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먼저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원인에 주목하여, 자기통제 오류 때문에 은퇴준비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행동재무학의 주장을 바탕으로 실제로 소비자의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할 것이다. 이 때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매개변인을 설정하는 과정은 계층적 성격모델과 투자자 행동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진행되었다. 투자자 행동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투자 행동에 개인의 성격적, 인지적, 동기적 요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다고 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객관적·주관적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기통제 이외에도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이라는 변수를 설정하여 연구 모형에 인지적 요인과 동기적 요인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계층적 성격모델을 통해 이러한 성격적, 인지적, 동기적 요인의 관계 및 구조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자기통제 성향을 직접적으로 유전적인 영향을 받거나 개인의 존재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기본적 특성 및 개인이 소속된 문화와 학습 역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중심적 특성으로 파악하였고,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경우 재무 환경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발현되는 특성이라는 점과 외부 환경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변수를 표면적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중심적 특성이 표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표면적 특성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층적 성격모델의 논리를 바탕으로 중심적 특성인 자기통제가 표면적 특성인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 두 가지 표면적 특성이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림 3-1>과 같은 연구 모형이 설정되었다. 이 연구모형을 토대로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소비자의 자기통제는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소비자의 자기통제는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하여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소비자의 자기통제는 객관적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소비자의 객관적 금융이해력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소비자의 자기통제는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하여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소비자의 자기통제는 주관적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소비자의 주관적 금융이해력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소비자의 자기통제는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소비자의 자기통제는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소비자의 은퇴목표의 명확성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절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대 이상의 소득활동 종사자로, 대표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자료의 성별, 연령별 인구비율을 바탕으로 하여 할당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을 20대 이상의 소득활동 종사자로 설정한 이유는, 가능한 일찍부터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20대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은퇴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온라인조사 전문 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경우 20대 이상의 소득활동 종사자인 남성 29명, 여성 21명으로 구성된 총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점검하고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조사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본조사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분석에는 총 600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589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은퇴관련 특성 및 은퇴준비행동, 자기통제 성향, 객관적 금융이해력, 주관적 금융이해력,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정의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이 때 교육비 부담의 경우, 보다 일반적인 자녀 양육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 대신 자녀 수를 변수로 포함시켜 측정하였다. 따라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수, 최종 학력, 직업, 거주지 규모, 주택보유 여부,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비지출, 자산, 부채, 주관적 경제수준,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총 14문항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측정 문항에 해당한다.

<표 3-1> 사회·인구학적 특성 측정문항

구분	문항 내용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수
	최종 학력	직업
	거주지 규모	주택보유 여부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비지출
	자산	부채
	주관적 경제수준	건강 상태

2) 은퇴관련 특성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은퇴관련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4가지 변수를 측정하였다. 먼저 은퇴 후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매달 평균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과 총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측정하고, 희망 은퇴연령과 예상 은퇴연령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은퇴준비행동을 측정하여 이러한 예상과 실제 소비자의 은퇴준비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표 3-2> 은퇴관련 특성 측정문항

구분	문항 내용
은퇴관련 특성	은퇴 후 월 평균 필요 예상 금액
	은퇴 후 총 필요 예상 금액
	희망 은퇴연령
	예상 은퇴연령

3) 은퇴준비 행동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행동을 은퇴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 및 투자 행동을 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객관적 은퇴준비행동과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은 월 평균 소득 중에서 은퇴를 대비한 금액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은퇴대비를 위한 금액이 아닌 월 평균 소득 중에서 은퇴를 대비한 금액의 비중으로 은퇴준비행동을 측정한 이유는, 절대적인 금액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 등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고 개인이 투입할 수 있는 자원 내에서 은퇴준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월 평균 소득 대비 은퇴준비 금액의 비중을 은퇴준비행동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은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 계획을 세웠으나 실천 수준이 미흡한 상태, 이미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총 7단계의 은퇴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은퇴준비행동 수준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해당된다.

<표 3-3> 은퇴준비행동 측정문항

변수	측정문항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월 평균 소득 중에서 은퇴를 대비한 금액의 비중
	①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②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③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계획은 세웠으나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④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⑤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⑥은퇴자금 마련을 위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저축/투자하고 있다.
	⑦이미 은퇴 이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

4) 자기통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를 목표달성을 위해 즉각적인 욕구를 자제력으로 극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Tangney 등(2004)이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Tangney 등(2004)은 개인의 자기통제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삶에서의 성공이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자기통제의 척도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측정될 수 있는 3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통제 척도와 13문항으로 축소된 자기통제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의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으며 36문항으로 구성된 전체 자기통제 척도뿐만 아니라 13문항으로 구성된 축소형 자기통제 척도 또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결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Tangney 등(2004)이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는 아래 <표 3-4>에 제시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자기통제 수준을 세분화하여 측정하고자 기존의 5점 리커트 척도 대신 7점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4> 자기통제 측정문항

변수	측정문항
자기통제	나는 유혹을 잘 참는다. (SC1)
	나는 나에게 해로운 것들은 하지 않는다. (SC2)
	나는 게으르다. (SC3)
	나는 부적절한 말들을 한다. (SC4)
	나는 나에게 해로운 일이라도, 재미만 있다면 그 일을 한다. (SC5)
	나는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가 힘들다. (SC6)
	나는 내가 좀 더 자제력을 가지기를 바란다. (SC7)
	나는 종종 모든 대안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SC8)
	나는 때때로 즐겁고 재미있는 것에 빠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SC9)
	나는 집중하기가 힘들다. (SC10)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SC11)
	때때로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멈출 수 없다. (SC12)
	사람들은 내가 강한 자제력을 가졌다고 말한다. (SC13)

5) 객관적 금융이해력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이해하고 금융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최현자(2010)가 개발한 금융이해력 지수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자금관리, 저축과 투자, 지출과 신용의 이해의 4영역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 특화된 1문항을 제외한 34문항을 사용하여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측정하였다. 개별 문항은 4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을 맞힐 경우 1점, 틀릴 경우 0점을 부여하여 맞힌 문항의 개수의 합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영역별 문항의 수는 소득의 이해 7문항, 자금관리의 이해 5문항, 저축과 투자의 이해 11문항, 지출과 신용의 이해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영역에 속한 문항의 번호는 아래 <표 3-5>와 같고,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의 설문지에 제시되어 있다.

<표 3-5> 객관적 금융이해력 측정문항

변수	영역	문항 번호
객관적 금융 이해력	소득의 이해 (7문항)	2, 4, 17, 22, 24, 28, 29
	자금관리의 이해 (5문항)	9, 19, 23, 27, 31
	저축과 투자의 이해 (11문항)	3, 6, 10, 12, 13, 14, 15, 21, 32, 33, 34
	지출과 신용의 이해 (11문항)	1, 5, 7, 8, 11, 16, 18, 20, 25, 26, 30

6) 주관적 금융이해력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금융 분야 및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 <표 3-6>과 같은 총 5문항으로 이루어진 주관적 금융이해력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이 때 측정도구는, Heath 등(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른 분야나 다른 사람에 비해 금융 및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들을 개발하고, Hershey 등(2000)의 연구에서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문항들 중 하나를 추가로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6> 주관적 금융이해력 측정문항

변수	측정문항
주관적 금융이해력	나는 다른 분야보다 금융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SFL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금융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SFL2)
	나는 다른 분야보다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SFL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더 잘 알

	고 있다. (SFL4)
	나는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SFL5)

7) 은퇴목표의 명확성

본 연구에서는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은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하며 은퇴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Stawski 등(2007)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3-7> 은퇴목표의 명확성 측정문항

변수	측정문항
은퇴목표의 명확성	나는 은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RGC1)
	나는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RGC2)
	나는 은퇴자금으로 얼마나 저축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RGC3)
	나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RGC4)
	나는 배우자, 친구 등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 은퇴 계획을 상의하였다. (RGC5)
	나는 은퇴 후 희망하는 재무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RGC6)

3. 조사도구의 신뢰도

<표 3-8>은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Cronbach's α 값을 구하여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자기통제, 주관적 금융이해력,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Cronbach's α 값이 0.86에서 0.95 수준으로 모든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내적 합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측정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자기통제	13문항	0.86
주관적 금융이해력	5문항	0.95
은퇴목표의 명확성	6문항	0.92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변수에 속한 문항들의 Chronbach's α 값을 구하여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각 변수의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의 사후검정으로서는 Duncan검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문제 3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전체 유효 표본은 총 589명으로 20대 이상의 소득활동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356명(60.4%), 여성이 233명(39.6%)이었고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72세로 40대가 167명(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46명(2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30대가 133명(22.6%), 20대가 81명(13.8%), 60대가 62명(10.5%)이었다.

결혼여부의 경우 기혼인 응답자가 411명(69.8%), 미혼인 응답자가 178명(30.2%)이었고 기혼인 응답자의 56.7%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졸이 284명(48.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고졸 134명(22.8%), 전문대졸 110명(18.7%)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249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종사자가 98명(16.6%), 전문직 종사자 및 판매직 종사자가 각각 61명(10.4%) 이었다.

거주지 규모의 경우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08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군/읍/면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4명(4.1%)으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였다. 주택보유 여부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대상자가 384명(65.2%)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 205명(34.8%)보다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월 평균 소득의 평균은 395.65만원이었으며 201-300만원이 134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하가 118명(20%), 401-500만원이 113명(1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자는 매달 평균 261.8만원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매달 101만원-200만원을 소비하는 집단이 161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201-300만원을 소비하는 집단이 151명(2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평균 3억 4천 161만원 정도의 자산과 평균 4천 540만원 정도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중하라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194명(32.9%), 중중이라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180명(30.6%)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79명(47.4%),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18명(37.0%)으로, 대다수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89)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성	356(60.4)	결혼 여부	미혼	178(30.2)
	여성	233(39.6)		기혼	411(69.8)
	계	589(100)		계	589(100)
연령	20대	81(13.8)	자녀 수	없음	32(7.8)
	30대	133(22.6)		1명	95(23.1)
	40대	167(28.4)		2명	233(56.7)
	50대	146(24.8)		3명	42(10.2)
	60대	62(10.5)		4명	9(2.2)
	계	589(100)	계	411(100)	
	평균(SD) 단위: 세	42.72 (11.68)		평균(SD) 단위: 명	1.76(0.8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2(2.0)	직업	관리직 종사자	48(8.1)
	고졸	134(22.8)		전문직 종사자	61(10.4)
	전문대졸	110(18.7)		사무직 종사자	249(42.3)
	대졸	284(48.2)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61(10.4)
	대학원졸 이상	49(8.3)		기술직 종사자	57(9.7)
	계	589(100)		농업·임업·어업 관련 종사자	1(0.2)
거주 지 규모	서울특별시	192(32.6)	주택 보유 여부	단순노무 종사자	14(2.4)
	6대 광역시	208(35.3)		자영업자	98(16.6)
	시 단위 중소도시	165(28.0)		계	589(100)
	군/읍/면	24(4.1)		보유	384(65.2)
	계	589(100)	비보유	205(34.8)	
	계	589(100)	계	589(10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18(20.0)	월 평균 소비 지출	100만원 이하	97(16.5)
	201-300만원	134(22.8)		101-200만원	161(27.3)
	301-400만원	109(18.5)		201-300만원	151(25.6)
	401-500만원	113(19.2)		301-400만원	114(19.4)
	501만원 이상	115(19.5)		401만원 이상	66(11.2)
	계	589(100)		계	589(100)
	평균(SD)	395.65		평균	261.80

	단위: 만원	(191.33)		단위: 만원	(136.11)
자산	1억 미만	169(28.7)	부채	없음	234(39.7)
	1억 이상 3억 미만	165(28.0)		1억 미만	244(41.4)
	3억 이상 5억 미만	127(21.6)		1억 이상 2억 미만	64(10.9)
	5억 이상 7억 미만	60(10.2)		2억 이상 3억 미만	36(6.1)
	7억 이상	68(11.5)		3억 이상	11(1.9)
	계	589(100)		계	589(100)
	평균(SD)	34,161		평균(SD)	4,540
단위: 만원	(42.880)	단위: 만원	(7,279)		
주관 적 경제 수준	하하	26(4.4)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2(0.3)
	하중	35(5.9)		좋지 않은 편이다.	59(10.0)
	하상	80(13.6)		보통이다.	218(37.0)
	중하	194(32.9)		좋은 편이다.	279(47.4)
	중중	180(30.6)		매우 좋은 편이다.	31(5.3)
	중상	62(10.5)		계	589(100)
	상하	10(1.7)			
	상중	2(0.3)			
	상상	0(0)			
	계	589(100)			

제 4 절 조사대상자의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은퇴목표 의 명확성의 수준

1. 조사대상자의 자기통제 수준

소비자의 자기통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13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 이를 측정하였다. 개별 문항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0>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자기통제의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4.37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자기통제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나에게 해로운 일이라도, 재미만 있다면 그 일을 한다’로 4.80점을 나타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내가 좀 더 자제력을 가지기를 바란다’로 3.41점을 나타내었다.

<표 3-10> 조사대상자의 자기통제 수준

특성	구분	평균 (S.D)
자기통제	나는 유혹을 잘 참는다.	4.70(1.15)
	나는 나에게 해로운 것들은 하지 않는다.	4.71(1.25)
	나는 게으르다. (역코딩)	4.23(1.34)
	나는 부적절한 말들을 한다. (역코딩)	4.58(1.25)
	나는 나에게 해로운 일이라도, 재미만 있다면 그 일을 한다. (역코딩)	4.80(1.27)
	나는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가 힘들다. (역코딩)	3.97(1.20)
	나는 내가 좀 더 자제력을 가지기를 바란다. (역코딩)	3.41(1.27)
	나는 종종 모든 대안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역코딩)	4.34(1.24)
	나는 때때로 즐겁고 재미있는 것에 빠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역코딩)	4.31(1.29)
	나는 집중하기가 힘들다. (역코딩)	4.60(1.19)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4.73(1.07)	

	때때로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멈출 수 없다. (역코딩)	4.41(1.24)
	사람들은 내가 강한 자제력을 가졌다고 말한다.	4.45(1.13)
	평균(S.D)	4.37(0.62)

2. 조사대상자의 금융이해력 수준

금융이해력은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주관적 금융이해력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1) 객관적 금융이해력의 수준

먼저 34문항을 바탕으로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측정하여,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금융이해력의 평균 점수는 23.71점이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69.7점으로 2010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금융이해력의 평균 점수 60.8점(최현자, 2010)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에 영역별 평균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3-11>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금융이해력 수준

특성	구분	평균(SD)
객관적 금융이해력	소득의 이해영역(7 점 만점)	5.10(1.43)
	자금관리의 이해영역(5 점 만점)	3.36(1.00)
	저축과 투자의 이해영역(11 점 만점)	7.21(2.05)
	지출과 신용의 이해영역(11 점 만점)	8.05(2.03)
	평균(SD)	23.71(5.13)

소득의 이해영역의 경우 7점 만점에 5.1점을 나타내었고, 자금관리의 이해영역은 5점 만점에 3.36점, 저축과 투자의 이해영역은 11점 만점에 7.21점, 지출과 신용의 이해영역은 11점 만점에 8.05점을 나타내었다. 이들 평균 점수를 각 영역 내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각각 72.86점,

62.8점, 65.55점, 73.18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지출과 신용의 이해 및 소득의 이해 영역의 지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반면, 저축과 투자의 이해, 자금관리의 이해 영역에 대한 지식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 금융이해력의 수준

선행연구들(Heath 등, 1991; Hershey 등, 2000)을 참고하여 구성된 5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71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금융이해력을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3-12>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금융이해력 수준

특성	구분	평균 (S.D)
주관적 금융이해력	나는 다른 분야보다 금융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3.78(1.2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금융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3.80(1.27)
	나는 다른 분야보다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3.62(1.2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3.61(1.24)
	나는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3.75(1.22)
	평균(S.D)	

5개의 문항들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다른 사람들보다 금융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한 문항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다른 사람들보다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한 문항이었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금융이해력 수준이 보통 이하의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사대상자들은 특히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자신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은퇴목표의 명확성 수준

은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하며 은퇴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6개의 문항을 제시하였고, 개별 문항 및 전체 평균 점수는 <표 3-13>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점수는 평균 3.92점으로,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수준이 거의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평균 점수가 4.49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은퇴 후 희망하는 재무 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은 정도를 측정한 문항으로 평균점수가 3.72점이었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그에 비해 재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정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조사대상자의 은퇴목표의 명확성 수준

특성	구분	평균(S.D)
은퇴목표의 명확성	나는 은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3.80(1.20)
	나는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4.49(1.22)
	나는 은퇴자금으로 얼마나 저축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3.81(1.28)
	나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3.86(1.25)
	나는 배우자, 친구 등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 은퇴 계획을 상의하였다.	3.83(1.31)
	나는 은퇴 후 희망하는 재무 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3.72(1.30)
	평균(S.D)	3.92(1.06)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 1절에서는 소비자의 은퇴관련 특성을, 제 2절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3절에서는 연구모형의 검증을 통해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과 은퇴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제 1 절 소비자의 은퇴관련 특성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은퇴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소비자가 은퇴 후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달 평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과 총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희망은퇴연령과 예상은퇴연령을 비교해본 뒤, 이러한 예상과 기대에 비해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은퇴준비의 수준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은퇴관련 특성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은퇴 후 월 평균 필요 예상 금액	200만원 이하	400(67.9)	은퇴 후 총 필요 예상 금액	3억 미만	133(22.6)
	201-400만원	161(27.3)		3억 이상 5억 미만	138(23.4)
	401-600만원	25(4.2)		5억 이상 7억 미만	135(22.9)
	601-800만원	2(0.3)		7억 이상 9억 미만	27(4.6)
	801만원 이상	1(0.2)		9억 이상	156(26.5)
	평균(SD) 단위: 만원	230.48 (461.63)		평균(SD) 단위: 만원	60,490 (55,727)
희망 은퇴 연령	50세 이하	29(4.9)	예상 은퇴 연령	50세 이하	74(12.6)
	51-60세	188(31.9)		51-60세	291(49.4)
	61-70세	328(55.7)		61-70세	199(33.8)
	71-80세	41(7.0)		71-80세	23(3.9)
	81세 이상	3(0.5)		81세 이상	2(0.3)
	평균(SD)	64.20		평균(SD)	60.38

	단위: 세	(6.70)		단위: 세	(7.19)
객관적 은퇴 준비 행동	5%미만				157(26.7)
	5%이상-10%미만				124(21.1)
	10%이상-15%미만				103(17.5)
	15%이상-20%미만				38(6.5)
	20% 이상				167(28.4)
	평균(SD) 단위: %				
주관적 은퇴 준비 행동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1(3.6)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204(34.6)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계획은 세웠으나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58(9.8)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126(21.4)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59(10.0)
	은퇴자금 마련을 위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저축/투자하고 있다.				99(16.8)
	이미 은퇴 이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				22(3.7)
	평균(SD)				
계					589(100)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은퇴 후 매달 평균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평균 230만원 정도였고, 범주 별로는 200만원 이하가 400명(67.9%)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00만원이 161명(2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은퇴 이후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 금액은 평균 6억 4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억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156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3억 이상 5억 미만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138명(23.4%), 5억 이상 7억 미만은 135명(22.9%), 3억 미만은 133명(22.6%)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64.2세에 은퇴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61-70세에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328명(55.7%)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예상하는 은퇴연령은 평균 60.38세로 희망은

퇴연령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291명(49.4%)의 응답자들이 51-60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은퇴 이후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예상은퇴연령이 희망은퇴연령에 미치지 못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시기보다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의 경우,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월 평균 소득의 16.01%를 은퇴대비를 위해 저축 및 투자하고 있었으며 월 평균 소득의 20% 이상을 은퇴대비를 위해 저축 및 투자한다는 소비자가 28.4%로 가장 많았고, 5% 미만을 저축 및 투자한다는 소비자가 26.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소비자의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7가지 단계로 살펴본 결과,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204명(34.5%)으로 가장 많아, 많은 수의 소비자가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를 실천하고 있더라도 그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는 응답자가 126명(21.4%)으로 그 뒤를 이어 은퇴준비를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도 그 수준이 미흡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은퇴와 관련된 예상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은퇴준비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은퇴 이후에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예상은퇴연령이 희망은퇴연령에 미치지 못하여 희망하는 것보다 일찍 은퇴를 맞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준비를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소비자가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의 괴리를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표 4-2>는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수, 최종학력, 직업, 거주지 규모, 주택보유 여부,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비지출, 자산, 부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수준, 건강상태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의 경우에는 거주지 규모, 부채, 주관적 경제수준,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의 경우에는 주택보유 여부, 월 평균 소득, 자산, 주관적 경제수준,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거주지 규모의 경우 군/읍/면 단위의 작은 규모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에 사는 거주자일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한다는 박창제(2008a)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군/읍/면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에 비해 시 단위 중소 도시 이상의 규모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가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고 비교적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은퇴준비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은퇴준비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보유의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한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은퇴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주택 관련 지출이 적고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부채가 없는 집단이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집단이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수준이 상중인 집단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은퇴준비행동을 모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김성숙 등, 1992; 이지은, 2000; 배문조 등, 2004; 홍성희 등, 2006; 여윤경 등, 2007; 박창제, 2008a; 정운영 등, 2009; 백은영, 2011; 박주영, 2012; Richardson 등, 1989; Morgan 등,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소득과 자산이 많고 부채가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경제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집단이 은퇴준비행동 역시 보다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은퇴 이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소비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은퇴준비를 위한 여유가 없는 소비자들의 은퇴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강상태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의 경우,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객관적·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현재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경제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의료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상태를 좋게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소비자들도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수행하여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은퇴 이후 생활에서 의료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지하게 하여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고, 이들의 은퇴준비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

			은퇴준비행동					
			객관적			주관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SD)	D	t/F	평균 (SD)	D	t/F
성별	남성	356	15.15 (17.65)		-1.34	3.68 (1.68)		0.42
	여성	233	17.31 (20.11)			3.62 (1.68)		
연령	20대	81	17.56 (19.64)		0.67	3.11 (1.63)		4.67
	30대	133	15.66 (17.65)			3.52 (1.69)		
	40대	167	16.20 (20.93)			3.65 (1.67)		
	50대	146	14.30 (15.68)			3.84 (1.64)		
	60대	62	18.21 (19.75)			4.23 (1.65)		
결혼 여부	미혼	178	17.91 (18.45)		1.63	3.27 (1.57)		-3.69
	기혼	411	15.18 (18.73)			3.82 (1.70)		
자녀 수	0명	32	13.96 (15.94)		0.38	3.44 (1.61)		0.59
	1명	95	13.90 (15.94)			3.87 (1.76)		
	2명	233	16.01 (20.50)			3.88 (1.70)		
	3명	42	13.77 (16.46)			3.67 (1.69)		
	4명	9	18.30 (19.57)			3.78 (1.4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2	19.92 (17.22)		0.86	5.00 (1.48)		4.06
	고졸	134	16.26 (22.02)			3.36 (1.63)		
	전문대졸	110	13.21 (13.42)			3.47 (1.68)		
	대졸	284	16.66 (18.81)			3.76 (1.65)		

	대학원졸 이상	49	16.83 (18.43)			3.94 (1.81)		
직업	관리직 종사자	48	15.96 (18.52)	0.31		3.67 (1.75)	1.82	
	전문직 종사자	61	17.81 (18.61)			4.10 (1.89)		
	사무직 종사자	249	16.08 (18.22)			3.68 (1.65)		
	서비스 및 판매 직 종사자	61	16.19 (19.34)			3.13 (1.49)		
	기술직 종사자	57	17.42 (22.59)			3.72 (1.83)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자	1	10.00			6.00		
	단순노무 종사자	14	14.31 (10.79)			3.64 (1.65)		
	자영업	98	14.08 (18.31)			3.56 (1.57)		
거주지 규모	서울특별시	192	16.21 (17.20)	a	3.81*	3.72 (1.60)	1.78	
	6대 광역시	208	14.40 (15.40)	a		3.62 (1.75)		
	시 단위 중소도시	165	19.06 (23.82)	a		3.72 (1.74)		
	군/읍/면	24	7.24 (10.50)	b		2.92 (1.06)		
주택 보유 여부	보유	384	16.43 (17.97)	0.76		3.85 (1.71)	4.02***	
	비보유	205	15.20 (19.95)			3.28 (1.5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18	14.40 (16.20)	2.27		2.97 (1.48)	16.02***	
	201-300만원	134	14.22 (15.75)			3.33 (1.47)		
	301-400만원	109	17.46 (22.00)			3.76 (1.59)		
	401-500만원	113	14.31 (17.64)			3.74 (1.69)		
	501만원 이상	115	20.01 (21.18)			4.55 (1.76)		
월	100만원 이하	97	20.06			3.42		

평균 소비 지출			(19.43)			(1.68)		2.26
	101-200만원	161	15.29 (15.41)		1.46	3.46 (1.64)		
	201-300만원	151	15.68 (19.04)			3.85 (1.61)		
	301-400만원	114	14.35 (20.67)			3.66 (1.80)		
	401만원 이상	66	15.41 (20.05)			4.00 (1.64)		
자산	1억 미만	169	14.70 (21.72)			1.55	2.91 (1.50)	a
	1억 이상 3억 미만	165	14.91 (16.72)		3.34 (1.49)		a	
	3억 이상 5억 미만	127	17.37 (19.70)		4.32 (1.52)		b	
	5억 이상 7억 미만	60	14.76 (11.82)		4.00 (1.77)		b c	
	7억 이상	68	20.45 (17.57)		4.72 (1.70)		c	
부채	없음	234	19.34 (20.95)	a	3.29*	3.70 (1.76)		1.97
	1억 미만	244	13.86 (17.51)	a b		3.50 (1.57)		
	1억 이상 2억 미만	64	14.50 (13.99)	a b		3.77 (1.69)		
	2억 이상 3억 미만	36	13.43 (16.77)	a b		3.89 (1.72)		
	3억 이상	11	9.81 (12.71)	b		4.73 (1.79)		
주관적 경제 수준	하하	26	9.32 (9.97)	a	3.33**	2.92 (1.35)	a	16.05***
	하중	35	9.94 (14.33)	a		2.77 (1.40)	a	
	하상	80	13.33 (15.26)	a		3.15 (1.35)	a	
	중하	194	14.45 (18.16)	a		3.25 (1.53)	a	
	중중	180	19.49 (21.23)	a		4.01 (1.72)	a b	
	중상	62	19.66 (19.36)	a		5.02 (1.42)	b c	

	상하	10	15.51 (14.79)	a		5.30 (1.77)	b c	
	상중	2	42.50 (10.61)	b		6.00 (0.00)	c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2	1.50 (2.12)	a	2.48*	3.00 (1.41)	a	3.69**
	좋지 않은 편이 다.	59	11.04 (12.51)	a b		3.07 (1.54)	a	
	보통이다.	218	15.50 (19.66)	a b		3.55 (1.70)	a b	
	좋은 편이다.	279	16.83 (18.41)	a b		3.80 (1.64)	b	
	매우 좋은 편이 다.	31	22.49 (21.90)	b		4.26 (1.84)	b	

*p<.05, **p<.01, ***p<.001

제 3 절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하고,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의 구조를 파악해 본다.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 변인이 잠재 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개별 요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개별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체 요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 변인을 바탕으로 한 잠재변인은 자기통제, 주관적 금융이해력, 은퇴목표의 명확성이므로 이 세 변수를 대상으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개별 잠재요인 대상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1) 자기통제 측정모형 분석

먼저 13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자기통제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chi^2 = 213.71(53, p=.000)$, GFI=.95, CFI=.93, NFI=.91, RMSEA=.07으로 나타나 χ^2 과 RMSEA를 제외한 적합도가 좋은 모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요인의 요인부하량이 $p <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

통제를 측정한 13개의 문항 중 2번, 11번, 13번의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5에 미치지 못해 세 문항의 삭제를 검토하였다.

3개의 문항을 삭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53.64(26, p=.001)$, GFI=.98, CFI=.99, NFI=.97, RMSEA=.04로 나타나 표본 수에 민감한 χ^2 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가 좋은 모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의 비교를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은 160.07만큼 감소했고 자유도는 27만큼 감소해, 자유도 감소를 만회할 만큼 χ^2 이 충분히 감소했으므로, 3개의 문항을 제거한 모형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Delta\chi^2=160.07 > \chi^2_{.05}(27)= 40.11$, $\Delta df=27$). 검증 결과 3개의 문항을 제거한 모형이 통계적으로 보다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적합도 지수 또한 개선되었기 때문에 3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4-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요인부하량이 $p<.001$ 에서 유의하였고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0.51에서 0.78의 값을 가져 모두 0.5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라는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측정변인이 수렴타당도를 확보함을 확인하였다.

<표 4-3> 자기통제 측정모형 분석 결과

잠재요인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
자기통제	SC1	1.00	0.51	-	-
	SC3	1.48	0.63	0.18	8.44***
	SC4	1.36	0.62	0.16	8.70***
	SC5	1.58	0.72	0.17	9.25***
	SC6	1.50	0.70	0.16	9.28***
	SC7	1.17	0.54	0.15	7.93***
	SC8	1.48	0.67	0.16	9.11***
	SC9	1.67	0.73	0.18	9.39***
	SC10	1.53	0.72	0.17	9.30***

	SC12	1.73	0.78	0.18	9.67***
$\chi^2 = 53.64(26, p=.001)$, GFI=.98, RMSEA=.04, CFI=.99, NFI=.97					

***p<.001

(2) 주관적 금융이해력 측정모형 분석

5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주관적 금융이해력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chi^2 = 1.47(1, p=.226)$, GFI=1.00, CFI=1.00, NFI=1.00, RMSEA=.03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좋은 모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4-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요인부하량이 p<.001에서 유의하였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0.83에서 0.89의 값을 가져 모두 0.5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주관적 금융이해력이라는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측정변인이 수렴타당도를 확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 주관적 금융이해력 측정모형 분석 결과

잠재요인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 오차	t
주관적 금융이해력	SFL1	1.00	0.85	-	-
	SFL2	1.08	0.89	0.03	39.21***
	SFL3	1.03	0.89	0.04	25.53***
	SFL4	1.02	0.87	0.42	24.17***
	SFL5	0.96	0.83	0.04	23.73***

$\chi^2 = 1.47(1, p=.226)$, GFI=1.00, RMSEA=.03, CFI=1.00, NFI=1.00

***p<.001

(3) 은퇴목표의 명확성 측정모형 분석

6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은퇴목표의 명확성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chi^2 = 7.79(4, p=.100)$, GFI=1.00, CFI=1.00, NFI=1.00, RMSEA=.04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좋은 모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4-5>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요인부하량이 $p<.001$ 에서 유의하였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0.64에서 0.89의 값을 가져 모두 0.5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은퇴목표의 명확성이라는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측정변인이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4-5> 은퇴목표의 명확성 측정모형 분석 결과

잠재요인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 오차	t
은퇴목표의 명확성	RGC1	1.00	0.82	-	-
	RGC2	0.79	0.64	0.05	16.93***
	RGC3	1.16	0.89	0.05	25.07***
	RGC4	1.12	0.87	0.05	23.98***
	RGC5	0.99	0.74	0.05	19.68***
	RGC6	1.14	0.86	0.05	24.99***

$\chi^2 = 7.79(4, p=.100)$, GFI=1.00, RMSEA=.04, CFI=1.00, NFI=1.00

*** $p<.001$

2) 전체 잠재요인 대상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개별 잠재요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의 3항목이 제거되었고 주관적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에서는 제거되는 항목이 없었다. 수정된 자기통제 측정모형 및 주관적 금융이해

력 측정모형,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측정모형으로 구성된 전체 측정변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6>과 같다.

먼저 적합도를 분석해보면, 전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hi^2=360.49(168, p=.000)$, GFI=.95, CFI=.98, NFI=.95, RMSEA=.04로 나타나 표본수에 민감한 χ^2 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좋은 모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전체 요인 대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요인	측정 변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 오차	t
자기통제	SC1	1.00	0.52	-	-
	SC3	1.47	0.63	0.17	8.55***
	SC4	1.34	0.62	0.15	8.78***
	SC5	1.55	0.73	0.17	9.36***
	SC6	1.48	0.68	0.16	9.40***
	SC7	1.15	0.52	0.14	8.02***
	SC8	1.46	0.63	0.16	9.21***
	SC9	1.65	0.72	0.17	9.52***
	SC10	1.51	0.72	0.16	9.44***
	SC12	1.69	0.77	0.17	9.79***
주관적 금융이해력	SFL1	1.00	0.83	-	-
	SFL2	1.07	0.87	0.03	39.30***
	SFL3	1.08	0.91	0.04	25.99***
	SFL4	1.08	0.90	0.04	25.05***
	SFL5	0.99	0.84	0.04	23.78***
은퇴목표의 명확성	RGC1	1.00	0.83	-	-
	RGC2	0.79	0.64	0.05	17.11***
	RGC3	1.15	0.89	0.05	25.59***
	RGC4	1.09	0.87	0.05	24.57***
	RGC5	0.98	0.74	0.05	19.91***
	RGC6	1.14	0.86	0.05	25.40***

$\chi^2=360.49(168, p=.000)$, GFI=.95, RMSEA=.04, CFI=.98, NFI=.95

***p<.001

또한 측정변수와 잠재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로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든 경로가 타당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측정변인은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잠재요인들 간의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그림 3-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영향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은퇴준비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경우와 주관적으로 측정한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1)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포함 모형 분석

(1) 모형의 적합도

가설검증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를 <표 4-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본 수에 민감한 χ^2 검증은 기각되었으나 GFI, CFI, NFI 값이 모두 좋은 모형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한편 RMSEA 값은 0.05이상의 값을 보였으나 괜찮은 모형의 기준을 충족시켜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모형을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모형에 기초하여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논의하였다.

<표 4-7>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분	적합도 지수
절대 적합도 지수	$\chi^2 = 670.37(207, p=.000)$, GFI=0.92, RMSEA=0.06
증분 적합도 지수	NFI=0.92, CFI=0.94

(2) 연구가설 검증결과

경로계수의 방향 및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7개의 가설 중 연구가설 3-2를 제외한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가설검증 및 경로분석 결과를 <표 4-8>에 제시하였다.

<표 4-8>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채택 여부
H1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 자기통제	5.96	0.17	1.69	3.52***	채택
H2-1	객관적 금융이해력 ← 자기통제	2.05	0.21	0.46	4.43***	채택
H2-2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 객관적 금융이해력	0.25	0.07	0.15	1.65*	채택
H3-1	주관적 금융이해력 ← 자기통제	0.19	0.10	0.10	2.04*	채택
H3-2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 주관적 금융이해력	0.14	0.01	0.74	0.20	기각
H4-1	은퇴목표의 명확성 ← 자기통제	0.35	0.19	0.09	3.81***	채택
H4-2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 은퇴목표의 명확성	3.55	0.19	0.80	4.44***	채택

*p<.05, ***p<.001

① [연구가설 1] 자기통제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연구가설 1을 검증한 결과, p<.001에서 연구가설 1이 채택되어 자기통제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즉 자기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월 평균 소득 중 은퇴대비를 위해 저축 및 투자하는 금액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객관적 은퇴준비 행동에 대한 자기통제의 경로계수 β 는 0.17이었으며, 행동채무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실제로 자기통제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객관적 은퇴준비 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연구가설 2]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연구가설 2-1과 연구가설 2-2의 검증을 통해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p < .001$ 에서 자기통제가 객관적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1이 채택되었고, $p < .05$ 에서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객관적 은퇴준비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2가 채택되어 소비자의 자기통제가 객관적 은퇴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 금융이해력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2가 지지되었다.

객관적 금융이해력에 대한 자기통제의 경로계수 β 는 0.21, 객관적 은퇴준비 행동에 대한 객관적 금융이해력의 경로계수 β 는 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아지고,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아질수록 객관적 은퇴준비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져 자기통제가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하여 객관적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연구가설 3]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의 검증을 통해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p < .05$ 에서 자기통제가 주관적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이 채택되었으나,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객관적 은퇴준비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2가 기각되어 소비자의 자

기통제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주관적 금융이해력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이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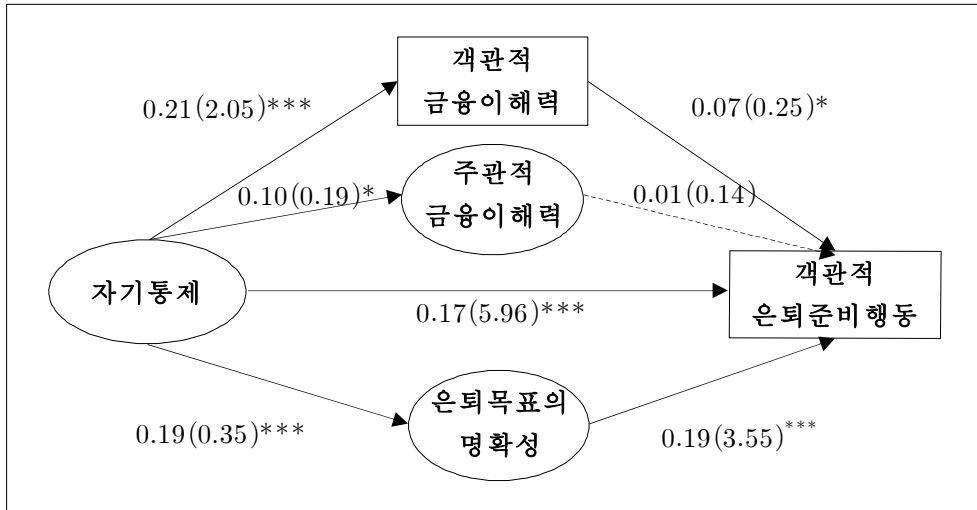
즉 소비자의 자기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아졌으나,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아질수록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통제가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하여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 [연구가설 4]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검증결과

연구가설 4-1과 4-2의 검증을 통해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p < .001$ 에서 자기통제가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4-1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4-2가 채택되어 소비자의 자기통제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4가 지지되었다.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자기통제의 경로계수 β 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경로계수 β 는 0.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높아질수록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져 자기통제가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경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1>과 같고, <표 4-9>를 통해 자기통제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4-1>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

앞서 자기통제의 직접효과 및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자기통제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기통제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바탕으로 한 간접효과로 분해될 수 있으며 분해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모형
경로변인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구분		자기 통제	객관적 금융이해력	주관적 금융이해력	은퇴목표의 명확성
객관적 금융이해력	직접효과	0.21	-	-	-
	간접효과	-	-	-	-
	총효과	0.21	-	-	-
주관적 금융이해력	직접효과	0.10	-	-	-
	간접효과	-	-	-	-
	총효과	0.10	-	-	-
은퇴목표의	직접효과	0.19	-	-	-

명확성	간접효과	-	-	-	-
	총효과	0.19	-	-	-
객관적 은퇴준비행동	직접효과	0.17	0.07	-	0.19
	간접효과	0.05	-	-	-
	총효과	0.22	0.07	-	0.19

자기통제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0.17이다. 간접효과의 경우,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01(=0.21 \times 0.07)$,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04(=0.19 \times 0.19)$ 로 나타나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자기통제의 간접효과는 $0.05(=0.01+0.04)$ 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자기통제의 총효과는 $0.22(=0.17+0.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자기통제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2)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포함 모형 분석

(1) 모형의 적합도

가설검증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를 <표 4-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본 수에 민감한 χ^2 검증이 기각되어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RMSEA값이 0.05이상의 값을 보였으나 이는 괜찮은 모형의 기준을 충족시켜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에 나머지 GFI, CFI, NFI의 값이 모두 좋은 모형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모형을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모형에 기초하여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논의하였다.

<표 4-10>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분	적합도 지수
절대 적합도 지수	$\chi^2 = 690.09(207, p=.000)$, GFI=0.91, RMSEA=0.06
증분 적합도 지수	NFI=0.92, CFI=0.94

(2) 연구가설 검증결과

경로계수의 방향 및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가설 2-2가 기각되고 나머지 6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검증 및 경로분석 결과는 <표 4-11>에 제시하였다.

<표 4-11>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t	채택 여부
H1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 자기통제	0.36	0.11	0.14	2.62**	채택
H2-1	객관적 금융이해력 ← 자기통제	2.07	0.21	0.47	4.42***	채택
H2-2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 객관적 금융이해력	0.01	0.02	0.01	0.63	기각
H3-1	주관적 금융이해력 ← 자기통제	0.20	0.10	0.10	2.05*	채택
H3-2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 주관적 금융이해력	0.17	0.11	0.06	2.79**	채택
H4-1	은퇴목표의 명확성 ← 자기통제	0.35	0.19	0.09	3.81***	채택
H4-2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 은퇴목표의 명확성	0.72	0.43	0.07	10.70***	채택

*p<.05, **p<.01, ***p<.001

① [연구가설 1] 자기통제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연구가설 1을 검증한 결과, p<.01에서 연구가설 1이 채택되어 자기통제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기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평가한 은퇴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자기통제의 경로계수 β 는 0.11이었으며, 행동재무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실제로 자기통제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연구가설 2]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연구가설 2-1과 연구가설 2-2의 검증을 통해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p < .001$ 에서 자기통제가 객관적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1이 채택되었으나,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2가 기각되어 소비자의 자기통제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 금융이해력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2가 기각되었다.

즉 소비자의 자기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아졌으나,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통제가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연구가설 3]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의 검증을 통해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p < .05$ 에서 자기통제가 주관적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이 채택되고, $p < .01$ 에서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2가 채택되어 소비자의 자기통제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주관적 금융이해력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이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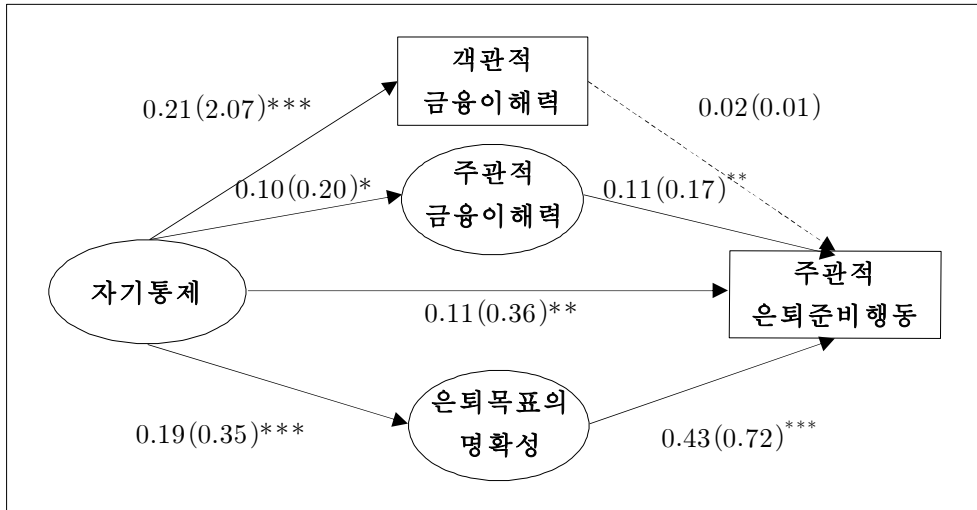
주관적 금융이해력에 대한 자기통제의 경로계수 β 는 0.10,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주관적 금융이해력의 경로계수 β 는 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아지고,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져 자기통제가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 [연구가설 4]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검증결과

연구가설 4-1과 4-2의 검증을 통해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p < .001$ 에서 자기통제가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4-1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4-2가 채택되어 소비자의 자기통제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4가 지지되었다.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자기통제의 경로계수 β 는 0.19,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경로계수 β 는 0.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져 자기통제가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경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2>와 같고, <표 4-12>를 통해 자기통제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4-2>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

앞서 자기통제의 직접효과 및 주관적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관적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자기통제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기통제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주관적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바탕으로 한 간접효과로 분해될 수 있으며 분해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모형
경로변인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구분		자기 통제	객관적 금융이해력	주관적 금융이해력	은퇴목표의 명확성
객관적 금융이해력	직접효과	0.21	-	-	-
	간접효과	-	-	-	-
	총효과	0.21	-	-	-
주관적 금융이해력	직접효과	0.10	-	-	-
	간접효과	-	-	-	-
	총효과	0.10	-	-	-
은퇴목표의	직접효과	0.19	-	-	-

명확성	간접효과	-	-	-	-
	총효과	0.19	-	-	-
주관적 은퇴준비행동	직접효과	0.11	-	0.11	0.43
	간접효과	0.09	-	-	-
	총효과	0.20	-	0.11	0.43

자기통제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0.11이다. 간접효과의 경우,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01(=0.10 \times 0.11)$,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08(=0.19 \times 0.43)$ 로 나타나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자기통제의 간접효과는 $0.09(=0.01+0.08)$ 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자기통제의 총효과는 $0.20(=0.11+0.0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자기통제가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주관적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자기통제가 객관적·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금융이해력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모형과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모형에서의 분석 결과가 각기 다르게 도출되었다.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에는,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검증된 반면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통한 간접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반대로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에는,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통한 간접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검증되었다.

즉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월 평균 소득 중 은퇴를 대비한 금액의 비중은 높지만 스스로 평가한 은퇴준비 수준은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월 평균 소득 중 은퇴를 대비한 금액의 비중은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

지만 스스로 평가한 은퇴준비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객관적 은퇴준비행동과 스스로 평가한 은퇴준비행동의 수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금융이해력을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가 현실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은퇴준비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자기과신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주관적 금융이해력은 0.107의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이를 통해 객관적 금융이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신감은 객관적인 측면의 은퇴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은퇴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기과신이나 과소평가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통제로 은퇴준비행동을 설명하는 행동 재무학 및 중심적 특성이 표면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층적 성격이론을 실증하는 결과이며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격적, 인지적, 동기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은퇴준비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은퇴준비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비자가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소비자의 은퇴관련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원인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인지적 요인인 금융이해력과 동기적 요인인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은퇴 후 매달 평균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평균 230만원 정도였고, 총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평균 6억 4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평균 64.2세에 은퇴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예상하는 은퇴연령은 평균 60.38세로 예상은퇴연령이 희망은퇴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예상은퇴연령이 희망은퇴연령에 미치지 못하여 희망하는 것보다 일찍 은퇴를 맞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비자가 은퇴준비를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과연 소비자가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은퇴준비행동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거주지 규모, 주택보유 여부, 경제적 특성, 건강 상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와 군/읍/면에 거주하는 거주지 규모가 작은 응답자가 은퇴준비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의 경우, 소득과 자산이 많고, 부채가 없으며,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은퇴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특성이 양호한 집단이 은퇴준비행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은퇴준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통제, 금융이해력 및 은퇴목표의 명확성과 은퇴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자기통제가 객관적·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이해력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모형과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모형에서의 분석 결과가 각기 다르게 도출되었다.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에는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검증된 반면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통한 간접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반대로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에는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통한 간접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주관적 금융이해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검증되었다.

먼저,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확인되어 행동재무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자기통제수준이 증가할수록 은퇴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통제가 증가할수록 객관적 금융이해력, 주관적 금융이해력,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증가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의 자기통제 수준의 개선을 통해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본적 특성이자 성격적 요인인 자기통제가 사회적 행동인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표면적 특성이자 인지적 요인인 금융이해력과 동기적 요인인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이해력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객관적 은퇴준비행동과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객관적 은퇴준비행동과 스스로 평가한 은퇴준비행동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주관적 금융이해력의 낮은 상관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취할 때, 금융이해력을 객관적인 수준과 주관적인 수준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할 수 있었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및 영향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격적 요인, 인지적 요인, 동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2 절 제언

1. 교육 및 실무적 제언

앞서 서술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교육 및 실무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준비행동의 활성화를 위해 은퇴교육을 진행하고 은퇴설계를 실시할 때,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군/읍/면 단위의 시골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에 비해 소득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은퇴준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도시에서도 은퇴준비를 위한 교육 및 재무설계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과정이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소비자일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비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규모 거주지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의 은퇴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교육 및 재무설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상황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좋은 소비자가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이전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은 개선의 여지없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집단의 은퇴준비행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때, 은퇴준비라는 것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자신이 처한 경제적 환경 내에서 적은 수준이라도 은퇴준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건강상태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의 경우,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은퇴준비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비가 은퇴 이후의 경제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소비자들이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수행하여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은퇴 이후의 생활에서 의료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식하게 하여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고 은퇴준비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이해하고 은퇴준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무적으로 은퇴설계를 진행하거나 은퇴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성격적, 인지적, 동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분석을 통해 기본적 특성이자 성격적 요인인 자기통제가 사회적 행동인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표면적 특성이자 인지적 요인인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동기적 요인인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먼저, 은퇴설계와 은퇴교육의 기초 단계에서 소비자의 자기통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행동 및 객관적, 주관적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행동이 궁극적으로 변화하여 지속성을 가지려면 개인의 내면에서부터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소비자의 자기통제 수준의 개선을 통해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자기통제 성향은 소비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성격적 요인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한 규칙이나 제약의 부여를 통해 소비자의 자기통제 성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연구를 통해 규칙이 설정되거나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의 은퇴를 위한 저축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Madrian 등, 2000). 따라서 은퇴설계나 은퇴교육의 초기 단계에 개별 소비자의 자기통제 성향을 측정하여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라 다른 강도의 소비 및 저축 규칙을 설정하고 부여함으로써 은퇴준비의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요인인 금융이해력과 동기적 요인인 은퇴목표의 명확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이해력과 은퇴목표의 명확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이해력의 경우,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측정된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도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객관적 금융이해력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증가시킨 반면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관적 금융이해력은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는 소비자의 객관적 은퇴준비행동과 스스로 평가한 은퇴준비행동 수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높은 소비자가 현실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은퇴준비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자기과신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취할 때, 금융이해력을 객관적인 수준과 주관적인 수준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먼저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은퇴설계와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객관적 금융이해력 수준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연구를 통해 객관적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이는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짐으로써 재무교육이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식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석 결과, 소비자의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자기과신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주관적 금융이해력은 0.107의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향후 은퇴설계 및 은퇴교육의 진행에 있어서 소비자가 객관적 금융지식의 함양을 토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상황과 은퇴준비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금융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신감은 소비자의 은퇴준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의 객관적 금융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은퇴준비의 필요성과 준비 과정,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퇴설계와 교육을 진행하고, 반드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재무관리와 은퇴준비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퇴설계 및 교육의 진행에 있어서 목표중심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은퇴목표의 명확성이 증대될수록 은퇴준비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향후 은퇴설계나 은퇴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이 처한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특화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명한 은퇴목표의 설정을 통해 소비자의 은퇴준비에 대한 실천 의지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자신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후속 연구에의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준비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을 월 평균 소득 중 은퇴대비를 위한 금액의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을 7단계로 구성된 은퇴준비수준에 대한 평가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은퇴준비행동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은퇴준비행동을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측정함

으로써 은퇴준비행동과 관련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금융이해력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주관적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객관적 금융이해력과 주관적 금융이해력의 낮은 상관관계 때문인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예측이 직접 증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자기 과신이나 과소평가가 은퇴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면, 인지적 요인과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45-57.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복지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2012), 은퇴와 연금,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61, 14-15.

박애라·최현자(2010), 누가 은퇴대비를 하는가, 한국소비자학회 2010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10, 59-67.

박주영·조혜진(2012), 통제위치성향과 은퇴준비행동과의 관계,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3), 89-112.

박창제(2008a),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57-297.

박창제(2008b),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139-166.

박창제(2011),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7(4), 327-351.

-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여윤경·정순희·문숙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 이승아·한경혜(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6(5), 125-135.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영·백은영(2009),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분석, 사회보장연구, 25(2), 115-139.
- 주소현(2009), 재무설계를 위한 행동재무학, 한국FP협회, 157-165.
- 차경욱·박미연·김연주(2008),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 최현자(2010), 2010년 대학생 금융이해력 지수(FQ) 측정결과, 금융감독원.

최혜지·이영분(2005),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415-435.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한국은행(2012),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19, 45-49.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홍성희·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국외문헌]

Akerlof, G. A. (1991), Procrastination and Obedi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1(2), 1-19.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1).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Barfield R. E. & Morgan, J. N. (1978), Trends in planned early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8(1), 13-18.

- Beck, S. H. (1984),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Differentials in Opportunity and Use, *Journal of Gerontology*, 39(5), 596-602.
- Buss, A. H. (1989), Personality as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4(11), 1378-1388.
- Friedman, S. L. & Scholnick, E. K. (1997),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planning: Why, How, and When Do we Plan?*, Routledge, 3-22.
- Goldberg, L. R. (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8(1), 26-34.
- Gollwitzer, P. M. (1993), Goal achievement: The role of intention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4(1), 141-185.
- Heath, C. & Tversky, A. (1991), Preference and Belief: Ambiguity and Competence in Choice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4(1), 5-28.
- Hershey, D. A. & Mowen, J. C. (2000),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0(6), 687-697.
- Hershey, D. A., Mowen, J. C. & Jacobs-Lawson, J. M. (2003),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Retirement Planning Intervention Seminars, *Educational Gerontology*, 29(4), 339-359.
- Hershey, D. A. (2004),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retirement

investor, CSA: Certified Senior Advisor, 22, 31-39.

Hershey, D. A., Jacobs-Lawson, J. M., McArdle, J. J. & Hamagami, F. (2007),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4(1-2), 26-36.

Hilgert, M. A., Horgarth, J. M. & Beverly, S. G. (2003),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Behavior, *Federal Reserve Bulletin*, 309-322.

Howlett, E., Kees, J. & Kemp, E. (2008), The Role of Self-Regulation, Future Orientation, and Financial Knowledge in Long-Term Financial Decision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2(2), 223-242.

Jacobs-Lawson, J. M. & Hershey, D. A. (2005), Influence of future time perspective, financial knowledge, and financial risk tolerance on retirement saving behaviors, *Financial Services Review*, 14, 331-344.

Kilty, K. M. & Behling, J. H. (1985), Predicting the Retirement Intentions and Attitudes of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y*, 40(2), 219-227.

Li, J., Montalto, C. P. & Geistfeld, L. V. (1996), Determinants of Financial Adequacy for Retir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39-48.

Lusardi, A. & Mitchell O. S. (2007),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1), 205-224.
- Lusardi, A. & Mitchell O. S. (2009), How Ordinary consumers make complex economic decisions: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readiness, NBER Working paper, 15350.
- Lusardi, A. & Mitchell O. S. (2011), Financial Literacy and Planning: Implications for Retirement Wellbeing, NBER Working paper, 17078.
- Madrian, B. C. & Shea, D. F. (2000), The Power of Suggestion: Inertia in 401(k) Participation and saving Behavior, NBER Working Paper, 7682.
- McClure, S. M., Laibson, D. I., Loewenstein, G. & Cohen, J. D.(2004), Separate Neural Systems Value Immediate and Delayed Monetary Rewards, *Science*, 306(5695), 503-507.
- McPherson, B. & Guppy, N. (1979),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2), 254-263.
- Morgan, L. A. & Eckert, J. K. (2004), Retirement Financial Preparation,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6(2), 19-34.
- Mowen, J. C. (1999a), The 3M model of motivation and personality: Theory and empirical applications to consumer behavior, Springer.

- Mowen, J. C. & Spears, N. (1999b), Understanding Compulsive Buying Among College Students: A Hierarchical Approach,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8(4), 407-430.
- Richardson, V. & Kilty, K. M. (1989),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Black Professionals, *The Gerontologist*, 29(1), 32-37.
- Royal Bank of Scotland(2012), 인구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Shim, S., Barber, B. L., Card, N. A., Xiao, J. J. & Joyce S. (2010), Financial Socialization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Parents, Work and Edu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2), 1457-1470.
- Stawski, R. S., Hershey, D. A. & Jacobs-Lawson, J. M. (2007), Goal Clarity and financial planning activities as determinants of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4(1), 13-32.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 Thaler, R. H. & Shefrin, H. M. (1981), An economic theory of self-control,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2), 392-406.
- Van Rooji, M. C. J, Lusardi, A. & Alessie, R. J. M. (2011),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Planning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2(4), 593–608.

Van Rooji, M. C. J., Lusardi, A., & Alessie, R. J. M. (2012), Financial Literacy, Retirement Planning, and Household Wealth, *The Economic Journal*, 122(560), 446–478.

Wiggins, J. S. (1996),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oretic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부록>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은퇴준비행동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정성 어린 답변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에 따라, 통계적 분석 및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을 제외한 각 문항에는 정답이 있지 않으니, 문항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나혜림(nhr110@naver.com)

I.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 및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유혹을 잘 참는다.							
나는 나에게 해로운 것들은 하지 않는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부적절한 말들을 한다.							
나는 나에게 해로운 일이라도, 재미만 있다면 그 일을 한다.							
나는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가 힘들다.							
나는 내가 좀 더 자제력을 가지기를 바란다.							
나는 종종 모든 대안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나는 때때로 즐겁고 재미있는 것에 빠져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나는 집중하기가 힘들다.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때때로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멈출 수 없다.							
사람들은 내가 강한 자제력을 가졌다고 말한다.							

II.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u>다른 분야</u> 보다 <u>금융 분야</u> 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금융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다른 분야보다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Ⅲ. 다음은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중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직불카드 ② 신용카드 ③ 양도성예금증서(CD) ④ 수표

2)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정부가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는 세금이다
 ②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6%이다.
 ③ 소득이 매우 적은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④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가격을 세액만큼 더 비싸게 한다.

3)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② 비과세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③ 고액의 이자소득액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④ 18세가 지날 때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4) 길동씨는 고향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길동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업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다면 길동씨나 길동씨가 다니는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① 길동씨의 월급이 많이 올라 높은 세금을 상쇄시킬 것이다.
 ② 세금인상은 길동씨의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③ 높은 세금으로 인해 회사들이 그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길동씨의 월급이 오를 것이다.
- ④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길동씨의 월급이 깎이거나 실직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할 때 대출이자가 일반적으로 가장 싼 대출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 ① 은행 ② 신용카드사 ③ 신용협동조합 ④ 상호저축은행

6) 수빈이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300만원을 내년에 대학등록금으로 쓰기 위해 모두 저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 이를 위한 가장 안전한 저축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 ① 주식투자 ② 펀드투자 ③ 은행 정기예금 ④ 이웃에게 빌려주기

7) 다음의 상황 중에서 먼저 돈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 ①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직업을 얻기 위해 차를 사야 할 때
- ② 사고 싶은 옷을 할인 판매하는 중일 때
- ③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더 클 때
- ④ 휴가를 꼭 가고 싶을 때

8) 다음은 개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등급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중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자신의 신용정보는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 ② 언제든지 연체된 대출금을 갚는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된다.
- ③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대출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
- ④ 백화점 구매대금이나 통신요금의 연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선우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앞서 가던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선우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입은 손해(차량파손)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 ① 자동차종합보험 ② 책임보험 ③ 생명보험 ④ 중신보험

10) 이기동씨와 고다해씨 부부는 아이출산을 기념해 아이의 대학교육에 쓸 자금으로 생각하고 1,000만원을 18년 동안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중 가장 높은 기대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투자안은 어느 것일까요?

- ①채권투자 상품 ②보통예금 상품 ③정기예금 상품 ④주식투자관련 상품

11) 만일 대출금이 연체되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신용문제상담기관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모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을 빌려줄 기관을 소개받는다.
②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준다.
③본인의 승낙 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취소해서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④대출기관과 상의하여 앞으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새로운 부채상환계획을 세워준다.

12) 다음 중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 ①증권회사의 수익증권 거래시 ②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 거래시
③보험회사의 변액보험 거래시 ④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거래시

13) 지영이는 매달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아 월세로 60만원, 외식비를 포함한 식비로 40만원, 옷값으로 20만원, 교통비 및 통신비로 20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로 1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지영이가 여유자금으로 부족한 전세보증금 500만원을 모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 ①9개월 ②10개월 ③11개월 ④12개월

14) 많은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저축합니다. 다음 중 비상자금으로 쓸 돈을 저축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연금저축 ②보통예금 ③정기예금 ④수익증권

15)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에서 가계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투자방법은 무엇일까요?

- ①10년 만기 국공채 ②양도성예금증서
③5년째 불입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

④ 고정금리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부동산

16)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았다면 앞으로 신용한도를 늘리기 위해 신용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 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가급적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 ③ 소액의 신용카드 대금이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연체하지 않도록 한다.

17) 개인이 일을 해서 버는 총소득 중 자유재량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총소득에서 여러 항목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총소득보다 적습니다. 다음 중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②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③ 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 ④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연금보험료

18) 다음은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사용하는 현금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ATM을 통해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가 있어야 한다.
- ② 현금카드가 있으면 수수료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 ③ 현금카드가 있으면 ATM을 통해 통장잔액이나 입출금 정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 ④ ATM이 있는 곳에서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24시간 언제나 현금을 찾을 수 있다.

19) 인플레이션은 우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은 다음 중 어느 가정일까요?

- ①은퇴를 대비해 저축을 하고 있는 나이든 맞벌이 부부
- ②고정된 은퇴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부부
- ③자녀가 없는 젊은 맞벌이 부부
- ④자녀가 있는 젊은 맞벌이 부부

20)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신고를 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 ①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
- ②신고시점 이후에 제3자가 이용한 현금서비스
- ③카드 회원의 동생이 사용하다 카드를 분실했던 경우
- ④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분실했던 경우

21) 재원씨는 25살부터 은퇴자금으로 매년 500만원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고, 동갑내기인 승현씨는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세부터 매년 1,000만원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같은 금융상품에 저축을 하였다면 이들이 75세가 되었을 때 누가 더 많은 은퇴자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 ①승현씨. 왜냐하면 매년 더 많은 돈을 저축했기 때문에
- ②둘 다 불입한 돈이 같기 때문에 은퇴자금이 같다.
- ③재원씨,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저축했기 때문에
- ④재원씨, 왜냐하면 저축액이 더 오랫동안 복리로 불어났기 때문에

22) 다음 중 근로소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자격증 ②직업 ③교육수준 ④재산

23) 다음 중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은퇴소득은 무엇입니까?

- ①퇴직연금 ②개인연금 ③고용보험금 ④산재보험금

24) 철수씨는 대학재학 중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년 1,000만원을 벌었는데 졸업 후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28) 다음 중 20-35세 연령대 사람들의 주요 소득원은 무엇일까요?

- ①사업소득 ②임대소득 ③급여나 임금 ④배당금이나 이자소득

29) 민수와 진규는 입사동기로 월 급여도 같습니다. 민수는 여유시간에 전산 지식을 배우는 등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는 반면, 진규는 여유시간에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면서 지냅니다. 민수와 진규의 앞날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예측은 무엇입니까?

- ①민수는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현재 직장에서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②진규는 민수보다 사교적이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③둘 다 계속 같은 돈을 받을 것이다.
④민수는 전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진규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30) 수정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중 은행의 대출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수정씨가 A은행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기록이 B은행의 대출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②수정씨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수정씨의 신용기록을 알기는 어렵다.
③모든 은행들은 대출자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만일 수정씨가 A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면 다른 은행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④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2년이 지났다면, 대출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1)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 중 의료보험의 보장과 관련해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할 때까지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②부모가 실직하게 되면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보장이 중단된다.
③젊은 사람들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
④나이에 관계없이 부모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2) 민수는 그동안 모아둔 돈 1,000만원으로 6년 후에 독립해서 들어갈 2,000만 원짜리 원룸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평균 수익률이 6%인 채권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과연 민수는 6년 후에 이 돈으로 원룸을 얻을 수 있을까요?

- ①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 ②6%의 수익으로는 원금이 2배가 되는데 6년 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불가능하다.
- ③원금이 두 배는 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룸의 전세가격이 올라 불가능하다.
- ④6%의 수익으로 원금이 충분히 2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33)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될 경우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금융의사결정은 무엇입니까?

- ①장기 금융상품보다는 단기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 ②대출을 활용하여 투자를 한다.
- ③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에 가입한다.
- ④주식형펀드보다는 채권형펀드에 투자한다.

34) 민수는 그동안 모아둔 돈 1,0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한 후 10년동안 환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펀드투자시 수수료와 보수는 극히 적은 금액이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②민수처럼 장기간 투자하는 경우 보수(위탁회사보수 등)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③민수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에 가입 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④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IV. 다음은 은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 및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은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나는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은퇴자금으로 얼마나 저축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나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배우자, 친구 등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 은퇴 계획을 상의하였다.							
나는 은퇴 후 희망하는 재무 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2. 귀하가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하여 귀택에서는 은퇴 후 한 달 평균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혼인 경우, 귀하 개인의 예상 필요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_____만원

3. 귀하가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하여 귀택에서는 은퇴 후 사망시까지 총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혼인 경우, 귀하 개인의 예상 필요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총 _____억 _____만원

4. 귀하는 몇 세쯤에 완전히 은퇴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세

5. 귀하는 실제로 몇 세쯤에 은퇴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세

6. 다음은 은퇴 이후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저축 및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귀하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②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 ③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계획은 세웠으나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 ④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 ⑤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 ⑥ 은퇴자금 마련을 위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저축/투자하고 있다.
- ⑦ 이미 은퇴 이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

7. 귀택에서 매 달 평균적으로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 및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미혼인 경우, 귀하 개인의 투자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_____만원

V. 다음은 귀하의 인적 특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결혼 여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미혼 ② 기혼

4. 귀하의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명

5.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직 종사자 ② 전문직 종사자 ③ 사무직 종사자
- ④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⑤ 기술직 종사자

- ⑥농업·임업·어업숙련 종사자 ⑦단순노무 종사자 ⑧자영업자

7. 귀하의 거주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서울특별시 ②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③시 단위 중소도시 ④군 / 읍 / 면

8. 귀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예 ②아니오

9.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 ①매우 좋지 않다.
 ②좋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좋은 편이다.
 ⑤매우 좋은 편이다.

10.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예금 이자, 임대료 등의 재산 소득, 부모나 친지,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 사업을 통해 얻는 사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미혼인 경우, 귀하 개인의 월 평균 소득을 응답해 주십시오.

※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 대략의 금액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월 평균 _____만원

11. 귀하의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교육비, 대출이자, 식비, 외식비, 문화생활비, 자동차보험료, 경조사비 등과 저축액을 포함한 전체 지출액을 적어주십시오.)

※ 미혼인 경우, 귀하 개인의 소비 지출 규모를 응답해 주십시오.

※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 대략의 금액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월 평균 _____만원

1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귀하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하하	②하중	③하상	④중하	⑤중중	⑥중상	⑦상하	⑧상중	⑨상상

13. 귀택의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가를 현재 가치로 적어 주십시오.

(※ 주택 시가, 전·월세 보증금, 상가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과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연금 저축 등을 포함한 금융자산, 그 외 자산을 포함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미혼인 경우, 귀하 개인의 자산의 현재 가치를 응답해 주십시오.

※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 대략의 금액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자산 ___억 _____만원

14. 귀택의 현재 빚은 어느 정도입니까?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 금융기관 및 직장에서 받은 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약관대출,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 외상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미혼인 경우, 귀하의 개인의 부채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 대략의 금액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 부채(빚) ___억 _____만원

이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마치셨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Retirement Preparation

Na Hye Rim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re is a growing need to systematically prepare retirement early by various social change, level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still in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factors that influence retirement preparation need to be investigated. Especially, because although many consumers recogniz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retirement preparation they don't practice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cause of discordance between one's thought and ac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retirement preparation based on behavioral finance which explains failure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with self-control mistake. Also,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not only direct effect but also indirect effect through financial literacy as cognitional factors and retirement goal clarity as motivational factors of self-control on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veal the structural relation of these factors. So,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consumer's retirement preparation and come up with practical and educational solutions for promoting retirement planning.

This study attempts (a)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retirement and the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b)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on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c)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 of self-control, financial literacy, retirement goal clarity and retirement preparation with the empirical model based on behavioral finance, Hierarchical Model of personality and Model of investor behavior.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retirement although many consumers recognize that they need a lot of money for retirement life and they should retire earlier than a period they want to retire, they don't even plan for retirement preparation.

Second,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on preparation for retirement showed that residence, home ownership, monthly income, asset, debt, perceived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had an effect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Consumers who own the house, live in the city, have a lot of income, asset, and no debt, and perceive highly their economic and health status prepare well for retirement.

Third, fro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the relation of self-control, financial literacy, retirement goal clarity, and retirement

preparation findings it was shown that self-control had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through retirement goal clarity o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retirement preparation. Meanwhile financial literacy has influence on objective retirement preparation and subjective preparation for retiremen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bjective financial literacy caused objective retirement preparation to increase but didn't have effect on subjective retirement preparation. On the other hand subjective financial literacy caused subjective preparation for retirement to increase but didn't have effect on objective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multidimensional approach is needed. That is, consum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sonality factors, cognitional factors and motivational factors all should be considered to promote consumer's retirement preparation.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conclusions the educational and practical proposals suggested by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when conducting retirement education and planning to promote retirement preparation. Specially it's necessary to find a way to help consumers who don't own the house, live in the country, and have low economic status and poor health condition to prepare for retirement.

Second, multidimensional approach which considers personality factor, cognitional factor and motivational factor is needed to effectively activate consumer's retirement preparation because the effect of self-control as cardinal trait and personality factor on retirement preparation as social behavior is mediated by financial literacy as central trait and cognitional factor and retirement goal clarity as central trait and motivational factor.

First of all, in the early stage of retirement planning and education foundation for fulfilling retirement preparation can be established by setting the different rule of consumption and saving according to the level of self-control. The result showed that self-control had positive effect and it suggested that essential change from inside is needed for sustainable change of behavior.

Also,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goal clarity should be increased. But in case of financial literacy, because financial literacy has influence on objective retirement preparation and subjective preparation for retiremen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it should be considered. It means it's possible that consumer's objective retirement preparation and self-rated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can be different. So, it should be careful to help consumers who are confident in their financial literacy not to rate highly their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without actual preparation. Thus, when taking approach on cognitional factors it is necessary to cause consumers to understand exactly their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based on cultivation of objective financial literacy.

Lastly, goal-setting approach is needed when conducting retirement planning and educa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higher level of retirement goal clarity rose, the more objective and subjective retirement preparation increased. Thus, there is need to make consumers set specific and clear goal which is specialized for themselves.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a follow-up study as follows. First, it's necessary to measure retirement preparation with more various ways. Retirement preparation can be defined diversely and there are many ways to measure preparation for retirement. So, a

follow-up study can investigate widely retirement preparation by measuring that with elaborate and various ways. And the difference of effects of objective financial literacy and subjective financial literacy on retirement preparation needs to be investigated. If a follow-up study investigate the effect of overconfidence and underestimate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the relation between cognitional factor and retirement preparation will be revealed more clearly.

**keywords : self-control, financial literacy,
retirement goal clarity, retirement preparation,
behavioral finance, Hierarchical Model of Personality,
Model of Investor Behavior.**

Student Number : 2011-21661